



[뉴스] 내년 반도체 산업 희망은 있다 02



Economy

코스피	2096.86 (0.00)	코스닥	695.76 (0.00)
금리 (국고채 3년)	1.90 (+0.01)	환율 (USD-달러)	1121.20 (+2.00) (11.30)

# 금리인상, 소비·투자 타격 우려... 韓경제 '빨간불'

## 저금리 파티는 끝났다

### (1) 성장률 하락 우려

한은 기준금리 1.75%로 인상 내수위축, 성장 둔화 가능성 주요기관 내년 성장률 낮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서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11월 통화정책 방향 관련 금융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가계와 기업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도 빨간불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안정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들어 경제성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은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내년 통화정책은 동결에 그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한은의 금리인상 동력은 약해졌다

◆ 경제성장률 발목 잡나... 경기하강 우려 고개

지난 10월 기준 생산·소비·투자가 '청신호'를 쳤지만 한은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국경제의 경기하강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상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이는 가계대출과 기업 자금조달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가계소비와 투자의 부진으로 이어져 경제성장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계절조정, 이하 동일)은 전월 대비

0.4%, 광공업 생산은 1.0%, 서비스업 생산은 0.3% 증가했다. 소매 판매지수와 설비투자지수도 각각 0.2%, 1.9% 상승했다.

하지만 경기상황에 대한 우려는 커졌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98.4)는 9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하며 7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이는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5월(97.9) 이후 9년여 만에 최저 수준이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98.8)도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이 역시 2009년 4월(98.5) 이후 가장 낮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소비와 설비투자가 위축돼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한은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위축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1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한은을 비롯해 주요 기관들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추가 하향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한은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9%와 2.8%에서 각각 2.7%로 낮췄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2.8%, 내년 2.6%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올해 2.8%, 내년 2.6%를 전망했고 LG경제연구원은 올해 2.8%에 이

어 내년에는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경기는 세계경기보다 더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며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경기의 성장추진력 약화와 설비투자 및 인구감소 등이 내년 경제성장을 둔화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금리 인상은 투자와 소비 등 내수에 타격이 된다"면서 "특히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건설경기가 극도로 부진한 가운데 부채비율이 높은 건설업체들은 유동성마저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추가 인상 여지 남겼지만...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

한은은 현재 금리 수준이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추가 인상 여지를 남겼지만 미 연준의 통화정책 행보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인상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정책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아직 미치지 않았다"며 "한번 금리를 인

상했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아직 완화적"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밝혔으나 시장에서는 내년 기준금리는 현 수준에 묶여있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기둔화가 뚜렷한 상황에서 한은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으면서까지 또다시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이번 금융위에서 조동철, 신인석 금융위원은 동결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한은 내에서도 인상 반대가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원은 "대내외 경제상황을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한국도 경제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한은이 내년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도 "이 총재가 간담회에서 한미 금리 차를 언급하며 내년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시장은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 5G시대 열렸다... 이통3사, 세계 첫 전파 송출

# 1호 고객은 명화공업·AI 로봇·LS엠트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 기업에 먼저 서비스 제공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이달 1일 0시를 기점으로 세계 첫 5세대(5G) 상용 전파 송출로 '5G 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미래 국가를 이끌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5G는 초광대역, 초저지연, 초연결이 특징이다. 롱텀에볼루션(LTE)의 한계를 극복해 음성통화, 인터넷뿐 아니라 자동차, 드론, 원격의료, 스마트팩토리 등 미래의 융합산업을 아우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명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일 오전 경기 분당에 위치한 SK텔레콤 인프라관리센터를 방문해 "최근 발생한 통신구 화재 사고에서 보듯 5G 기반 초연결 시대에는 통신 인프라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동통신사 최고경영자(CEO)도 5G 출발을 기념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5G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며 "SK텔레콤은 CDMA 디지털 이동전화부터 LTE까지 모바일 신세계를 이끌어 온 ICT리



1일 0시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임직원과 외부 관계자들이 5G 전파 송출 스위치를 누르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T 코퍼레이트센터장, 강종렬 ICT인프라센터장, 문창수 지엔에스기술 대표, 이현용 SKT 매니저, 박정호 사장, 서성원 MNO사업부장, 이경운 명화공업 이사, 권순택 대교대리점 대표, 박진호 SKT ICT기술원장. /SKT

더로서 소명감을 갖고 5G가 불러올 새로운 미래를 여는 선구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5G 전파는 서울, 경기도 성남·안산·화성·시흥, 6대 광역시, 제주도 서귀포시, 울릉도·독도 등 13개 시·군 주요 지역에 제공된다.

5G 첫 통화는 분당에 있는 박정호 사장과 '세계 5G 1번지' 서울 명동에 위치한 SK텔레콤 박석희 매니저 간에 이뤄졌다. 통화에는 삼성전자 5G스마트폰 시제품이 활용됐다. 이어 SK텔레콤은 분당 네트워크 관리센터-부산 해운대·대전 둔산동·광주 금남로 간 5G 통화에 차례로 성공했다.

KT는 1일 과천 네트워크관리센터에서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5G 상용 전파 첫 송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KT는 1일 자정(0시)을 기점으로 3.5GHz의 100MHz 대역 5G 전파 송출을 통해 5G 상용망을 개통했다.

또 전국 주요 24개시를 비롯하여 고속도로, 지하철, KTX 등 주요 이동경로와 초기 트래픽 집중이 예상되는 대학교와 주변 상권에 우선적으로 5G 네트워크를 추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도 1일 자정 서울 마곡 사옥에서 세계 최초 5G 전파

송출 행사에 참석해 첫 5G 전파 발사 점등식, 깃발 꽂기 세레머니 등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하현희 부회장이 직접 시연에 나섰다. 대전기술원에서 서울 마곡 사옥에 5G망을 이용한 '화상통화'를 걸어 5G 영상 데이터를 서울 마곡 사옥에 전송, 서로의 화면을 연결했다. 5G 기지국이 현재 4100여 곳으로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지역을 구축한 LG유플러스는 이달 말까지 5G 기지국 7000개 이상을 구축할 예정이다.

5G 서비스는 기업 고객에게 먼저 제공될 예정이다. (2면에 계속)

## 韓 중장년 실업률도 美 추월

2분기 중장년 실업률 2.9%  
美 2.7% 보다 0.2%p 높아

때문에 미국을 넘어선 한국의 실업률은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올해 들어 55~64세 중장년층 실업률이 외환위기 후 처음으로 미국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로 중장년층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빠르게 상승한 데다 최근 계속된 고용난까지 겹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2일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55~64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4%p 상승한 2.9%였다. 같은 기간 미국의 실업률 2.7%보다 0.2%p 높은 수치다.

한국의 중장년층 실업률이 미국을 넘어선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3분기~2001년 1분기 이후 17년여 만에 처음이다.

우리나라의 중장년층 실업률은 2011~2012년 미국보다 3~4%p 낮았지만 이후 격차가 점차 축소되면서 올해 미국보다 높아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여성·노인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노동시장 규모가 큰 선진국일수록 개발도상국 등에 비해 실업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실업률은 경기 상황 외에도 경제활동 참가율 등 노동시장 성숙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실업률 역전 현상은 2분기 연속 계속되고 있다. 올해 3분기 한국의 중장년층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5%p 상승한 3.0%였던 반면, 미국은 0.3%p 하락하면서 우리보다 0.1%p 낮은 2.9%에 머물렀다.

청년층에 이어 중장년 실업률까지 미국을 추월하면서 전체 실업률도 역전될 상황에 놓였다. 3분기 기준 한국의 실업률은 3.8%로 미국(3.9%)의 턱밑에 근접해 있다.

지난해 1분기에 이미 미국을 추월한 우리나라의 청년층(15~24세) 실업률은 7분기째 고공행진을 하며 격차를 키우고 있다.

중장년층 실업률 악화는 경기부진 영향으로 수년째 계속되는 고용난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20만~30만명 수준이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1분기 18만명으로 떨어졌는데 이어 2분기 10만1000명, 3분기 1만7000명까지 감소했다.

고령화 영향으로 경제활동의지가 있는 장년층이 많이 늘어난 점도 실업률 지표를 나쁘게 하는 요인이다.



美·中 무역분쟁

초격차 전략

멀티카메라 시대

“내년 반도체 산업 희망은 있다”

세계 업계, 1000억 달러 설비투자 스마트폰 성장세 꺾여 ‘업황 우려’

美·中 무역분쟁 ‘호재’ 될 수도 ‘멀티 카메라’에 업계 호황 바람

사실상 올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온 반도체 산업의 내년 업종전망을 둘러싸고 다양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예상은 두갈래다. 초호황을 끝내고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비관과, 수요 증가로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낙관이다. 반도체가 부품 업종만큼 내년 세트업황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정점은 끝났다

대체로 업계는 비관론에 더 힘을 실는 모양새다. 최근 초호황이 공급 부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는 분석 때문이다.

2일 IHS마킷에 따르면 반도체 공급은 올 4분기 수요보다 많아질 예정이다. 수요 대비 공급 비율이 D램 0.91, 낸드플래시 0.96으로 예상된다. 공급이 수요보다 D램 9%, 낸드 4% 많다 의미다.

실제로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DR 8GB 가격은 2일 기준 7달러선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7.19달러로, 2달전인 9월 8.31달러보다 15% 가장 급락했다. 낸드 가격도 몇달째 하락을 이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수출에도 노란불이 켜졌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반도체 수출액이 106억8000만달러라고 밝혔다. 전년과 비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전장사업. 이미지센서가 차량 전반에 도입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내년 낸드를 주로 생산하는 청주 M15 공장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



전문가들은 내년 스마트폰이 멀티카메라를 확대하면서 반도체 시장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펜타카메라를 장착한 LG V40 씽큐. /LG전자

교하면 11.6% 증가했지만, 올해 누적 수출증가율(34%)과 비교하면 30% 미만으로 줄었다

‘공급 과잉’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업계가 최근 막대한 설비 투자를 단행한 까닭이다. IC인사이드는 올해 글로벌 반도체 업계 설비 투자액이 역대 최초로 1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평택공장과 SK하이닉스 청주공장(M15)이 내년 가동을 앞두고 있다.

주요 고객인 스마트폰 업계도 성장세가 꺾인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등 세트 업계는 대체로 1년 계획을 미리 잡는다. 반도체 시장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셈”이라며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년 업황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나친 위기론 경계도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시장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비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계속 성장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현상 유지는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화투자증권 이순학 연구원은 내년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22조원 수준으로 내다봤다. 올해보다 불과 2% 떨어진 것이다. 낸드 부문이 수출 상승과 원가절감 등에 성공하면서 올해보다 25% 낮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D램 부문에서는 오히려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내년 이보다 큰 폭으로 하락세를 겪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하반기에는 재반등에 무게가 실린다. 신영증권 이원식 연구원은 삼성전자 내년 영업이익을 올해보다 15% 낮은 54조원으로 예상하면서도, 상반기 가격 안정과 하반기 수요 증가로 실적을 개선할 여지가 높다고 분석했다.

미·중간 무역 분쟁이 뜻하지 않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반도체가 미국 측 제재로 성장 동력을 잃게 되면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낸드 부문에서는 아직 가능성이 있지만, D램 부문에서는 시장 진입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보고 있다.

‘초격차’ 전략도 주효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께 D램에 102나노 공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낸드도 128단 출시를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셀1개에 비트4개를 집어넣는 QLC SSD 시장에도 뛰어 들었다. 높은 수율로 원가를 절감하면서, 가격 하락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새로운 시장 개척 기대도 높다. 파운드리가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당장 올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2배 늘린 12%를 기록하면서 대만 TSMC에 이은 2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내년에는 7나노 E

UV 공정을 완성하면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SK하이닉스도 분사한 SK하이닉스시스템IC가 3분기 순이익 514억원을 기록 중이다.

‘멀티 카메라’ 시대도 반도체 업계에 훈훈한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 내년 스마트폰 시장에 ‘펜타 카메라’가 보급될 예정, 자동차도 자율주행 기능을 확대하면서 이미지센서 탑재량을 크게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이미지 센서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점유율 2위까지 올라선 상태다. SK하이닉스도 자회사를 통해 CMOS 이미지 센서 개발에 힘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굴기가 무너진 것은 분명한 호재”라며 “다양한 시장 개척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시장에 변수가 많은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美 금리인상 예측 어려워... 불확실성 고조

>> 1면 ‘금리인상, 소비·투자...’서 계속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한은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지난달 28일 뉴욕의 한 연설에서 “현재 미국의 금리가 경제를 과열시키지도, 둔화시키지도 않는 중립적인 수준으로 추정되는 폭넓은 범위의 바로 밑에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 연준은 금리를 빠르게 올려왔는데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은은 당분간 추가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면 한은의 금리인상 부담도 덜

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 연준의 다음 금리인상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불확실성이 고조됐다.

만약 미 연준이 오는 18~19일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연 2.25~2.50%로 0.25%포인트 올릴 경우 한·미 금리 연적차는 다시 0.75%포인트(상단 기준)로 벌어진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다른 국가에 비해 경기 여건이 탄탄한 미국도 금리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은 한국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

내년 3월엔 5G 스마트폰 출시 될 듯

>> 1면 ‘5G시대 열렸다...’서 계속

개인 고객은 5G용 스마트폰 단말이 출시되는 내년 3월께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5G 1호 고객사인 안산반월공단의 명화공업은 ‘5G-AI 머신 비전’ 솔루션을 가동했다. 이 솔루션은 자동차 부품이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가는 동안 1200만 화소 카메라로 사진 24장을 찍어 5G를 통해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한다. 서버의 고성능 인공지능(AI)은 사진을 판독해 제품에 결함이 있는지 확인했다. SK텔레콤 5G자율주행차는 경기 화성 자율주행실증도시 ‘K-City’와 시흥 일반도로에서 테스트 운행을 시작했다. KT의 5G 1호 가입자는 AI 로봇 ‘로터’

다. 단순한 이동통신 세대의 교체가 아닌 생활과 산업 전반을 혁신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KT는 이번 1호 머신 가입자를 시작으로 하여 2호, 3호의 머신 및 기업 간 거래(B2B) 파일럿 가입자로 영역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5G MH S(모바일 핫스팟) 단말은 전용 요금제인 4만9500원에 10GB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 5G 서비스 국내 1호 고객은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LS엠트론이다. LS엠트론은 LG유플러스와 함께 ‘5G 원격 제어 트랙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리자는 마치 실제 트랙터 조종석에 앉아서 운전하는 것처럼 트랙터를 원격 조종하며 관제센터 모니터에서 작업현황을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방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 고려하고 업계별 차등적용, 연구·검토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달 1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방향”이라며 “다만,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한 우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취업자 증가폭 둔화에 대해서는 생산가능인구 등 구조 요인, 구조조정 등 경기요인 및 일부 정책요인에 복합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이같이 답변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최저임금 민감업종에서 고용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액 적용유예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은 법률에 효력 발생 시기가 다음연도 1월 1일로 명시돼 있어 적용유예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업종별 차등은 근거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매년 부결됐다”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타당성, 실현 가능

성 등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분배 왜곡,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시장에서 애로를 제기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과의 소통,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나갈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고용 상황 악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생산가능인구 등 구조 요인, 구조조정 등 경기요인 및 일부 정책 요인에 복합 기인하고 있다”며 정책요인

에 관해서는 “좋은 의도의 정책도 속도, 어려운 경제여건 등과 맞물려 단기적으로 일부 취약계층 고용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노동수요·공급·노동시장구조 측면의 종합적 접근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 가속화, 혁신 인재 양성, 수요에 맞는 직업 훈련, 미스매치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수요 창출·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이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투자 등 마중물 역할”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고용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간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함께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고용 안정성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시장의 역동성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관망세·거래절벽 장기화... 매수·매도자 '동상이몽'

## 부동산 시장 영향

금리인상 폭 작아 여파 미미할 듯 매수자, 집값 추가 하락 기대감 매도자, 상승 기대 '관망' 가능성

'집값 떨어질까? 오를까?'

한국은행이 지난 주말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9·13 대책 등으로 조정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이 한층 더 위축될 전망이다.

매수자는 금리 인상에 따라 집값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반면, 매도자는 상승 국면을 기다리며 관망할 가능성이 높아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1.50%→1.75%)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 폭이 작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없이 관망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금리 상승세에 부담을 느끼고 매물을 내놓는 매도자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매도자·매수자 모두 실제 타격은 미미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심교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금리 인상이 시장에 마이너스 압력을 주긴 하지만 이 자체로 충격을 줬다고 보기는 이전의 상승세와 거시경제 불안 등으로 조정을 받는 것이지 직격탄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



9·13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가격 하락 폭이 전주의 2.5배로 확대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5% 떨어졌다. 3주 연속 하락세이자 지난주 보다 2.5배 확대된 수치다. 서울 전셋값은 계절적 비수기, 풍부한 공급량 등의 이유로 전주와 같이 -0.06% 떨어졌다. /연합뉴스

봤다.

윤지혜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은 1~2개월 전부터 있었고, 시장금리엔 이미 반영됐다"며 "3주 연속 매매가가 떨어지고 있고 12월부터 내년 2월 초까지는 분양 비수기에 해당해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도 "이번 금리 인상 조치는 폭탄의 느낌보다는 진정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급격한 집값 하락보다는 점진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다만 부동산은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대치보다 불확실성이 크면 접근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

며 "특히 대출 부담감이 커지고 내년엔 중부세 인상이 가시화되면 더 커져 매물이 더 많아질 수 있는데, 매수자들은 가격 하

락 기대감이 있어 실질적인 거래 성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봤다.

더 이상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 공격적인 투자도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단기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대출규제가 까다로워진 가운데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 부동산 시장에 고인 과잉 유동자금이 다소 줄고, 주택 시장의 거래량과 가격 움직임이 한동안 둔화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함랩장은 "최근 서울 지역의 매수 관망에 따른 가격 조정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늘어난 이자부담은 대출을 통해 레버리지(leveraging) 효과를 노리기 점차 어려워지는 구조"라며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끼고 집을 구입하는 공격적인 투자 패턴이 점차 숨을 고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 조치보다는 향후 추가 요인에 의해 시장이 출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미윤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 폭과 상관없이 올렸다는 액션이 중요하다"며 "다른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부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것인데, 이번 조치보다는 향후 금리 추가 인상 등의 시그널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지혜 수석연구원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담대 금리 부담 등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다만 기준금리가 얼마나 더 빨리 오를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더 크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 함영진 랩장은 "부진한 내수, 고용시장의 한파 등 국내 경기둔화와 서울 집값의 약세, 정부의 수요억제 등에 따라 금리인상기 주택시장의 매입 의사 결정은 부채 상환능력을 고려해 보다 보수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 저축은행·대부업 '연체도미노' 우려

고위험 대출자 위주 연체 증가 가능성 이자 부담 가중... 보호대책 마련해야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의 부실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가계와 기업들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 고위험 대출자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연체행진이 이어질 수 있어서다.

2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SBI, OK, 웰컴, 애큐온, JT친애 등 주요 5대 저축은행의 소액신용 대출액은 올해 9월 5268억원으로 지난해 말(6225억원)보다 957억원 감소했다. 또한 소액신용대출 연체액도 지난해 12월 416억7700만원에서 올해 3월 437억3800만원, 6월 439억1000만원으로 오름세를 이어가다 9월 404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액신용대출 연체액 비중은 대체로 증가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공시자료에 따르면 JT친애저축은행 15.55%, 애큐온저축은행 12.0%, OK저축은행 10.51%를 기록해 5대 저축은행중 3곳이 10%가 넘는 연체율을 기록했다. 급전이 필요해 소액신용대출을 이용한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1년 만에 이뤄진 금리 인상은 저신용자의 이자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연간 평균 이자비용이 308만 원에서 364만 원으로 56만 원 늘어나고 한계가구는 803만 원에서 913만 원으로 110

만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금리인상이 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았던 대출자나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이 차상위 가구층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한계가구는 2만 5000가구 증가하고, 대출금리가 1.5%포인트 오르면 한계가구는 6만 가구 증가한다. 한계가구는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 이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뜻한다. 돈을 벌어도 이 중 40% 이상을 빚 갚는데 써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에서도 추가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어 가계부실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인상기에는 늘 연체율과 부실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며 "금리인상기에 대출금리 상한선이 낮아지면 결국 신용등급이 더 우량하고 안전한 고객들에게 대출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취약차주에 대한 우선적인 정책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부실이 우려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약자인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상승기에는 취약계층이 연체 등의 어려움에 더 노출되고 빚 부담이 늘면 가처분소득도 줄어 내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Fighting!**

**생명보험이 100세 시대를 뛰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금융,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세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종신까지 든든한 생명보험이 삶의 여유를 드립니다. 혜택도 보장도 평생 든든한 생명보험이 함께 합니다.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 “은행업 경쟁력 부족”... 제3은행 추가 탄생 신호탄?

(인터넷은행 등)

## 금융위 은행업 경쟁도 평가

이달 말 인터넷銀 신규인가안 발표  
‘다소 집중된 시장’-‘경쟁시장’ 경계

현재 국내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당국은 먼저 현행법상으로도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이달 중으로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11월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

### (보조적 경쟁도 평가정리)

구분	은행수	시장구조	비용효율성	경쟁환경	소비자평가
현재	중립	중립	부정적	다소 긍정적	다소 부정적
전망	중립	다소 부정적	부정적	다소 긍정적	다소 부정적

/자료=금융위원회

위원회를 설치해 각 업권별 주기적 평가를 실시키로 한 바 있다. 은행은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세 차례 회의를 거쳐 경쟁도를 평가했으며, 업계 의견도 청취했다.

평가위는 정량분석, 산업 구조 등에 대한 보조적 분석, 소비자 만족도 등 정성 평가 등을 감안할 때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인 HHI지수는 1233~1357을 기록, ‘경쟁시장’과 ‘다소 집중된 시장’의 경계선에 있었다.

HHI지수는 시장을 경쟁시장과 다소 집중된 시장, 매우 집중된 시장으로 나뉜다. 한국의 은행업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보면 다소 집중된 시장이고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 보면 경쟁 시장으로 분류된다. 시장구조나 경영 효율성 등

에 대한 보조분석 결과를 보면 은행업의 경쟁도는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위는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비슷해지는 상태로 안정화돼 향후 경쟁유인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으로 평가한 은행업 수익성은 최근 개선되고 있으므로 기존 은행의 관점에서 볼 때 신규진입을 감내할 능력은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은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은행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통 이하인 46.7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평가위는 은행업 경쟁도 제고를 위해 신규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평가위는 “시중은행,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인가보다는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가 보다 적절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현행법상으로도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인가를 고려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의 세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금융위는 이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먼저 올해 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위는 이달부터 내년 1분기까지 금융투자업과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NH농협금융 스포츠단 납회식에서 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소속 스포츠 선수들에게 격려말을 하고 있다.

## 김광수 회장, 스포츠단 납회식서 선수 격려

(NH농협금융)

“선수들의 땀방울은 농협인의 자랑”

NH농협금융은 지난달 30일 김광수 회장이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2018 농협금융 스포츠단 납회식(納會式)’을 열고 소속 정구, 테니스, 골프 선수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NH농협금융은 정구 및 테니스팀(NH농협은행)과 프로골프단(NH투자증권)을 각각 운영 중이다. 이날 행사는 올 한 해 동안 NH농협금융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한 선수단을 격려하는 등 경영진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김 회장은 “한 해 동안 선수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은 농협에 든든한 힘이 되고 농협인의 자랑”이라며 “선수 한분 한분이 농협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2019년

황금돼지의 해에도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NH농협은행은 1959년 정구팀을, 1974년 테니스팀을 각각 창단하고, 비인기 스포츠종목 육성 및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 지난 8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소속선수 4명이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 2개를 획득한 바 있다.

NH투자증권 여자프로골프선수단 또한 국내외에서 선전하며 NH농협금융을 알리는데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이미림 선수는 LPGA 통산 3회 우승을 차지해 해외까지 농협의 위상을 전하고 있으며, 이승현 선수와 박민지 선수는 올해 KLPGA 에스오일(S-OIL) 챔피언십대회와 A DT캡스 챔피언십 대회에서 각각 우승했다.

/안상미 기자

## NH농협생명 “70대도 치매보험 가입 OK”

NH농협생명은 최대 75세까지 가입 가능한 ‘백세시대NH치매보험(무해지환급형·무배당)’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치매 초기증상인 경도치매 진단 확정시 200만원, 중증도치매 600만원, 중증치매는 1000만원의 진단급여금을 단계별로 보장한다. 예를 들어 경도치매로 200만원을 지급받은 계약자가 중증치매 진단 확정을 받으면 8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 중증치매 진단 확정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며 매월 120만원씩 생선토록 간병생활자금 받을 수 있다.

특약도 차별화했다. 총 4가지 특약 중 안심케어 특약은 치매환자의 부양자(자녀)가 먼저 사망할 경우 피부양자(부모)에게 일시금 500만원과 매월 생활자금 100만원을 10년 확정 지급한다. 또 중증 알츠하이머치매보장특약, 파킨슨병보장



특약, 11대성인병치료특약에 선택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2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능하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납입기간 동안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환급형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표준형보다 약 25% 저렴하다. 보험료는 20년 납, 100세 만기,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40세 남자는 월 5만9500원, 40세 여자는 6만7400원이다.

/김희주 기자 hj89@

## 신한銀, 국내 은행 최초 日서 신용대출

모바일 가입·심사 ‘에스 셀렉트’ 독자적 신용평가 모형 기반 적용

신한은행이 국내 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신용대출을 선보인다.

신한은행은 일본에서 독자적인 신용평가모형에 기반한 모바일 신용대출인 ‘에스 셀렉트(S-Select)’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에스 셀렉트론은 일본 현지 고객이 모바일을 통해 연소득, 타행 대출정보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SBJ은행이 현지 고객의 특성에 맞춰 독자 개발한 개인신용평가모델인 ‘스코어 탭(Score Tab)’을 통해 심사하고, 고객은 모바일로 대출한도, 금리, 대출기간 등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 심사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고객이 납부하는



서울 신한금융그룹 사옥.

보증회사 보증료도 부담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글로벌에서 디지털 분야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최대 모바일 소비자금융사 아쿠라쿠(Akulaku), 베트남 국민 메신저 잘로(Zalo), 전자지갑 모모(MoMo), 캄보디아 GMS 자동차대출 등 주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과 제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베트남 모바일 통합 플랫폼 솔(SOL)에 이어 이번에 일본에서 자체 신용평가모델 기반의 에스 셀렉트론을 출시하는 등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글로벌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SBJ은행은 올해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Moody’s)로부터 ‘A2’의 신용등급을 획득했고, 일본 최대 신용평가회사인 JCR로부터도 ‘A’ 등급을 평가 받는 등 일본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관 중 가장 성공적인 현지화 사례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안상미 기자

## 3분기 은행 부실채권비율 1% 아래로 떨어져

0.10%p 하락한 0.96%p  
인터넷은행 부실비율 올라

국내은행들의 부실채권비율이 1% 아래로 내려갔다. 다만 신용대출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비율은 상승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96%로 전분기 말 대비 0.10%포인트 하락했다. 신규부실은 감소한 반면 부실채권 정상화 규모는 늘었다.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7조 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조6000억원 줄었다.

부문별로는 기업여신 부실채권이 16조 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89.9%를 차지하며, 가계여신과 신용카드채권이 각각 1조 6000억원, 2000억원이다.

3분기 말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1.9%로 전분기 말 대비 9.2%포인트 높아졌다.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1.40%로 전분기 말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 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추이)

단위: 조원·%·%p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증감 (c-a)	분기 (c-b)
	12월	9월	12월	9월(a)	12월	6월(b)	9월(c)			
부실채권 계	30.0	29.1	24.6	20.5	21.1	19.4	17.8	▲2.7	▲1.6	
기업여신 <sup>1)</sup>	27.9	27.0	22.8	18.7	19.4	17.6	16.0	▲2.7	▲1.6	
가계여신	1.9	1.9	1.7	1.6	1.6	1.6	1.6	0.0	0.0	
신용카드	0.1	0.2	0.2	0.2	0.2	0.2	0.2	0.0	0.0	
총여신	1,644.3	1,700.1	1,732.9	1,774.0	1,775.9	1,821.7	1,852.2	78.2	30.5	
부실채권 비율 <sup>2)</sup>	1.80	1.71	1.42	1.15	1.19	1.06	0.96	▲0.19	▲0.10	
대손충당금적립률 <sup>3)</sup>	112.0	123.9	82.7	90.9	93.7	102.7	111.9	21.0	9.2	

주: 1) 공공·기타부문 포함. 2) 고정이하여신/총여신. 3) 총대손충당금잔액/고정이하여신. /자료=금융감독원

기업여신이 2.02%로 0.44%포인트 낮아졌고, 중소기업여신은 전분기 말과 비슷한 1.04%를 유지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23%로 전분기 말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은 0.18%로 0.01%포인트 하락한 반면 기타 신용대출은 0.36%로 0.01%포인트 상승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도 1.34%로 전분기 말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은행별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부

실채권비율이 0.49%, 0.92%로 전분기보다 각각 0.06%포인트, 0.1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인터넷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17%로 전분기보다 0.07% 상승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각각 0.46%, 0.12%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개선추세를 지속했다”며 “향후 신규부실 추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 ‘정의선號’ 기분좋은 출항... G90·팰리세이드 흥행몰이

G90, 사전계약 11일간 6713대  
팰리세이드, 첫날 3468대 ‘대박’  
하반기 국내외 시장 흥행 신호탄

정의선 3세 경영체제로 전환한 현대차 동차그룹이 올 하반기 국내외 시장에서 기분좋은 스타트를 보이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이 공들여 내놓은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 G90과 현대차의 플래그십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팰리세이드가 출시와 함께 ‘흥행’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 수석 부회장이 사전기획 단계부터 전면에서 진두지휘하며 공을 들인 제네시스 G90과 팰리세이드는 국내 시장에서 사전계약 시작과 동시에 수천대가 계약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출시된 G90은 EQ900의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이지만 신차급으로 바뀌면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전면부 변화를 준 외장 디자인부터 내장 소재 고급화 및 향상된 디테일의 내장 디자인, 자동 무선 업데이트와 지능형 차량관리 서비스 등 편의사양을 탑재한 정보기술(IT),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NSCC) 등의 최첨단 장치를



인플루언서 메디슨 피셔,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총괄부회장, 연구개발총괄 양용철 부회장, 현대차그룹 디자인 담당 루크 동커볼케 부사장, 미국법인 최고운영책임자 브라이언 스미스(왼쪽부터)가 현대차의 새로운 플래그십 대형 SUV ‘팰리세이드’가 발표된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오토쇼’ 행사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갖췄다. 또 국내 최초로 적용된 외부 공기 유입 방지 제어는 공기가 좋지 않은 지역을 지날 때 자동으로 내기로 전환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최신 기술을 대거 적용해 출시 전부터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G90은 지난 12일부터 11일 동안 진행된 사전계약에서 모두 6713대가 계약됐다.

제네시스는 G90의 국내 상승세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어갈 전망이다. 제네시스는 내년 상반기부터 미국, 캐나다, 러시아, 중동 시장 등에 G90을 순차 출시할 예

정이다. 특히 제네시스의 판매망도 대거 확대됐다.

정 수석부회장은 “미국에서는 주별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는 30개 주 이하였지만, 이제 50개가 돼 더 적극적인 마케팅과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G90을 비롯한 G80, G70 등 세단 라인업에 오는 2021년까지 SUV 3종을 추가해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현대차가 LA오토쇼를 통해 처음 선보인 플래그십 대형 SUV 팰리세이드는 국내 출시와 함께 ‘대박’ 조짐을 보이고



현대차 제네시스사업부장 피츠제럴드 부사장이 G90을 소개하고 있다.

있다. 사전계약 첫날인 지난달 29일 3468대의 계약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팰리세이드의 이같은 실적은 포드 익스플로러, 혼다 파일럿 등 동급의 외산 대형 SUV의 지난해 평균 5개월치(750대×4.6개월) 판매량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 지난해 연간 국내 대형 SUV 산업수요(4만7000대)의 7% 수준에 달하는 실적을 하루 만에 기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팰리세이드 높은 상품성과 넓은 실내 공간, 합리적인 가격이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팰리세이드는 동급 최대 수준의 넓은 실내 공간과 첨단 사양을 대폭 적용했음에도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됐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아직 확정된 가격은 아니지만 현재 공개된 가격 범위로 보면 가장 높은 트림의 가격(디젤 프레스티지 4177만~4227만원)에 선택 가능한 옵션(727만원)을 다 더해 4904만~4954만원이 돼 5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이는 동급 외산 SUV 대비 500만~600만원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팰리세이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오토쇼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자마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가 상승시의 2배가 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 현대차는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삼성, 화양동 롯데시네마에 ‘3D 오닉스’

건대입구관에 ‘슈퍼S’관 오픈

삼성전자가 LED 스크린 ‘3D 오닉스’를 적용한 극장 상영관을 운영한다.

삼성전자는 1일 서울 화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관에 ‘슈퍼(Super)’관을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SuperS는 국내 첫 3D 오닉스를 사용한 상영관이다. 10m 크기에 최대 300니트 밝기, 4K 해상도를 구현했다. 오디오 시스템에는 하만의 JBL 브랜드를 적용했다.

또 삼성전자는 SuperS에 삼성전자 모바일 제품을 기반으로한 업무 솔루션을 적용했다. 로비에는 갤럭시S4와 ‘녹스’ 기반 키오스크를 설치해 음성 기반 티켓 구매 및 매점 메뉴 주문을 가능케 했다.



삼성전자는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 오닉스 스크린을 적용한 SuperS관을 오픈했다. /삼성전자

직원들에게는 기어 S3와 갤럭시워치 기반 현장관리시스템을 적용했다. 직원 간 소통을 돕고 업무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 오닉스 스크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juk@



유명 디자이너들이 블루밍 데일스 LG 시그니처 매장에서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 LG전자 美 블루밍데일스百에 시그니처 매장

LG전자는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블루밍데일스’ 백화점에 시그니처 매장을 성공적으로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LG전자는 블루밍데일스에서 공식 판매하는 첫 생활가전 브랜드를 기록하게

됐다.

LG전자는 앞으로 프리미엄 유통채널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더 많은 고객에게 시그니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 삼성·애플에 뒤지지 않는 ‘카메라 성능’

IT 체험기

샤오미 ‘포코폰F1’

‘가성비’ 무기로 국내 소비자 공략  
노치 디자인 취향따라 변경 가능

외산폰들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샤오미, 화웨이, ZTE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높은 제품을 무기로 국내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다.

그중 지난 19일 국내에 정식 출시된 샤오미 ‘포코폰 F1’을 사용해봤다.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45 칩셋을 탑재했다. 삼성의 갤럭시노트9와 LG V40 씽큐와 동일하다.

배터리는 4000mAh(밀리암페어시)

의 대용량 배터리를 갖췄다. 갤럭시노트9와 같은 아이폰XS보다는 좋은 배터리 성능을 갖췄다. 또한 퀵차지 3.0을 지원한다.

포코폰F1은 언어 선택, 비밀번호 설정 등을 하면 바로 사용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노치 디자인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외관 부분에서 전면부는 6.18인치, 2246×1080 해상도의 LCD 대화면을 탑재해 시원하다는 인상을 받았지만 하단 베젤(테두리)은 다소 두껍다는 느낌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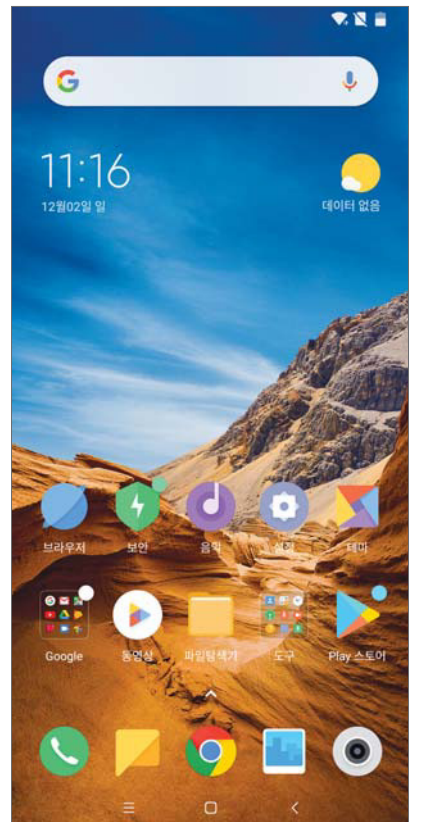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이 카메라의 개수를 늘리는 등 카메라에 기능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카메라를 중점적으로 사용해봤다. 포코폰F1은 후면 1200만·500만화소 듀얼 카메라를 탑재했다. 포코폰F1의 후면카메라는 기본적으로 AI카메라로 실행된다.

AI카메라가 환경을 자동으로 인식해 그에 맞는 필터를 추천해줘 최적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총 206개의 장면을 연출한다.

나무를 찍으려고 하면 나뭇잎 모양, 도시의 건물을 찍으려고 하자 건물 모양의 아이콘이 나타났다. 이외에도 ‘필름’, ‘따스함’, ‘차분함’ 등 13개의 필터를 설정해 촬영할 수 있고 인물 모드, 파노라마 모드, 사각 모드 등도 지원한다.

95만7000원의 갤럭시S9, 136만4000원 아이폰XS와 비교해 촬영을 해본 결과 카메라 성능 부분에서 뒤처진다는 느낌이 크지 않았다.

전면에는 20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다. 포코폰 F1은 여태까지 써본 많은 스마트폰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셀피 결과물을 보여줬다. 단순히 예쁘고



홍화면. /구서윤 기자

멋진 사진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사진이었다.

포코폰F1은 지문 인식과 얼굴 인식을 통해 잠금 화면을 해제할 수 있다. 지문인식은 기자가 사용 중인 갤럭시S9보다 더 빨랐다.

동영상을 1시간 이상 연속 재생했지만 뜨거워진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발열을 잡아주는 수냉식 쿨링 시스템이 장착됐기 때문이다.

방수, 방진 적용이 안됐고 NFC(근거리 무선통신) 지원이 되지 않는 점 등은 아쉽지만 가성비 측면에서 훌륭한 스마트폰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느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임금격차 줄인다... 포스코, 3년간 협력사 7771억 지원

‘동반위 임금격차해소운동’ 동참  
POSCO 파트너스데이서 협약체결  
인건비 인상분, 복리후생 등 포함

포스코(POSCO)가 3년간 총 7771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활동을 협력사들에게 지원키로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격차 해소 운동’ 동참을 결정하면서다.

2일 동반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달 30일 서울 테헤란로 포스코센터에서 ‘POSCO 파트너스데이’를 열면서 ‘With POSCO 동반성장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포스코 협력사와 함께하는 파트너스데이는 동반성장 활동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로 올해가 10회째다. 여기에는 포스코 뿐만 아니라 포스코건설, 포스코컴텍,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등 계열사도 참여했다.

포스코는 지난 10월 동반위 8개 위원사와 함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우수 협력기업 직원 인센티브 등을 포함해 6150억



지난달 30일 서울 테헤란로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With POSCO 동반성장 실천 협약’ 행사에서 (왼쪽부터)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 조선내화 이인욱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협약을 통해 성과공유제, 생산성향상 등을 위해 904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4개 계열사도 이와 별도로 717억원을 협력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새로 제공키로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계열사 전체적으로 3년간 경영안정자금 6200억원, 임금지불능력제고 1305억원, 임금 및 복리후생 266억원을 협력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격차해소형 상생 프로그램〉

기업명	지원규모(3년)			주요 지원내용	
	임금 및 복리후생	임금지불 능력제고	경영안정자금		총액
포스코	148억원	1,246억원	5,660억원	7,054억원	▶임직원 인센티브, 인건비 인상분, 복리후생 지원
포스코그룹사	118억원	59억원	540억원	717억원	▶성과공유제, 민관공동R&D ▶스마트공장, 안전강화 비용, 벤처창업 지원
합계	266억원	1,305억원	6,200억원	7,771억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반성장위원회

여기에는 ▲임직원 인센티브, 인건비 인상분, 복리후생 ▲성과공유제, 민관공동 연구개발(R&D) ▲스마트공장, 안전 강화 비용, 벤처창업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금이 두루 포함돼있다.

또 포스코그룹은 협력기업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현금 또는 상생결제로 주기 등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1차 협력기업은 2차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 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동

시에 관련 혜택이 협력기업 직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키로했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성과공유제를 최초 도입한 동반성장 선도 기업인 포스코그룹이 협약을 통해 협력기업과의 임금격차 해소와 더불어 함께 발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로 약속했다”면서 “협력기업 간의 출혈경쟁, 품질 저하 문제를 야기시키는 과도한 저가 낙찰 방지를 위해 그룹사 전체가 노력하겠다는 의미 있는 동반성장 실천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현대중, 사장단 워크숍 개최

현대중공업그룹이 지난 1일 강원도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사장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그룹의 올해 경영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각 사별 내년도 경영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새롭게 취임한 사장들의 각오와 목표 등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현대중공업지주 권오갑 부회장(왼쪽 여섯 번째)과 현대중공업 가삼현 사장(왼쪽 다섯 번째), 현대중공업 한영석 사장(일곱 번째) 등 임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 ‘LA 오토쇼’ 장식한 SUV “주인공은 나”

현대차 대형 SUV ‘팰리세이드’ 등  
글로벌 완성차업체 잇따라 신차 선보

글로벌완성차업체들이 공개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들이 지난 28일 개막한 2018 LA 오토쇼에서 빛을 받고 있다.

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SUV 국내신차등록대수 비율은 지난 2014년 24.8%에서 2017년 32.8%까지 높아졌다. 커다란 차체, 넓은 적재공간, 안전성 외에도 각종 IT기술을 갖춘 SUV들은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오토쇼에서 7~8인승 대형 SUV 팰리세이드를 선보였다. 엔진은 국내 판매 사양 기준 3.8리터 가솔린과 2.2리터 디젤이 탑재됐다. 전자식 4륜구동 시스템 ‘H트랙’을 장착했으며 험로 주행 모드도 갖추고 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연계해 차로 중앙 주행을 구현한 ‘차로 유지보조’, 후방 접근차를 감지해 경고하거나 멈추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보조’, 고속도로 곡선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감속 또는 가속을 제한하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도 적용했다.

BMW는 SUV ‘뉴 X7’을 공개했다. 뉴 X7은 3열 시트를 갖춘 7인승 모델로 BMW의 대표적인 대형 SUV 모델이다. 뉴 X7의 엔진 라인업은 가솔린 2종(40i, 50i)과 디젤 2종(30d, M50d) 등 모두 4종으로 구성됐는데, 이 가운데 M50d는 최고



지난 28일 개막한 LA 오토쇼에서 공개된 현대자동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팰리세이드 /연합뉴스

출력 400마력, 최대토크 77.5kg·m의 힘을 발휘한다.

링컨은 7인승 대형 SUV ‘올 뉴 에비에이터’를 선보였다. 이번 오토쇼에서 공개된 ‘링컨 에비에이터 그랜드 투어링’에는 링컨 브랜드 최초로 트윈 터보 3.0리터 V6 엔진과 최첨단 하이브리드 기술이 적용됐다. 게다가 ‘폰 애즈 어 키(Phone As A Key)’ 기능이 있어 운전자는 스마트폰으로 시동을 걸 수 있으며 차량을 열고 닫을 수 있다.

올-뉴 에비에이터는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델로 나오며 국내에는 오는 2019년 하반기에 출시될 전망이다.

피아트크라이슬러(FCA)그룹은 지프의 5인승 중형 픽업 트럭 ‘올 뉴 지프 글래디에이터’를 선보였다. 올 뉴 지프 글래디에이터는 오는 2019년 하반기에 V6 3.6리터 펜타스타 엔진을 얹은 가솔린 모델을

출시하고 2020년에는 V6 3.0 디젤 모델을 선보인다. 가솔린 모델에는 8단 자동 변속기 또는 6단 수동 변속기가 적용될 예정이다. 디젤 모델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된다. 트림별로는 스포츠, 스포츠 S, 오버랜드, 루비콘 등 4가지가 나온다.

혼다는 5인승 SUV ‘패스포트’를 공개했다. 신형 패스포트는 CR-V와 파일럿 사이를 담당하는 모델로 보강된 모노코크 프레임과 최고출력 280마력을 발휘하는 3.5L 직분사 i-VTEC V6 엔진, 독립형 서스펜션 및 9단 자동변속기 등의 조화를 이뤘다.

한편 지난달 30일 일반인 관람을 시작해 오는 9일까지 이어지는 LA 오토쇼에는 전 세계 40여개의 완성차업체가 참가해 60종 이상의 신차를 공개한다.

/정연우 기자 yw964@

## 르노삼성, SM7 최대 115만원 할인

연말 ‘굿바이 프로모션’ 진행  
신차 구매고객 특별할인 혜택



르노삼성 QM6

르노삼성은 연말을 맞아 12월 한 달간 신차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추가 지원, 저금리 금융상품을 포함한 조기 출고 고객 특별 할인 등 다채로운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르노삼성이 선보인 ‘굿바이 프로모션’은 SM6를 비롯한 전 차종(마스터, 전기차 제외) 구매 시 개별소비세 0% 추가 지원, V7 내비게이션, S-Link 패키지 등 추가 옵션 중 한가지를 선택 제공한다. ‘개별소비세 0%’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 개별소비세 3.5%에 해당하는 금액(차종/트림별 차량 기본가격 기준)을 추가 지원하는 프로모션이다.

개별소비세 0% 추가 지원을 선택하면 트림별로 ▲SM6 70만~100만원 ▲QM6 75만~110만원 ▲QM3 70만~80만원 ▲SM7 80만~115만원(19년형 선택 시 35만원 추가 더할할인) ▲SM5 60만~70만원 ▲SM3 45만~60만원 ▲르노 클리오 60만~70만원이 제공된다.

차종별로 추가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 ▲SM6, QM6는 S-Link 패키지 I 또는 패키지 II 무상 장착(QM6 GDe RE 시

그니처 트림 선택 시 매직 테일게이트 추가 제공) ▲SM5 V7 내비게이션 무상 장착, ▲SM3 V7 내비게이션 또는 스마트 커넥트 II 무상 장착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전 차종(마스터, 전기차 제외) 조기 출고 고객에게 SM6는 60만원, 나머지 모델들은 20만원의 추가 현금을 지원한다.

전기차 구입 고객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마련되었다. 국내 유일의 준중형 세단 전기차 SM3 Z.E. 현금 구매 시 50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36개월 할부 구매 시 무이자 혜택과 함께 250만원 할인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초소형 전기차 르노 트위지 구매 고객에게는 약 30만원 상당의 측면 창문 옵션 무상 장착과 함께 현금 구매 시 100만원 할인, 할부 구매 시 5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vs@

## 쉐보레, 말리부 최대 560만원 할인

이달 한달간 ‘메리 쉐비 페스타’  
임팔라 최대 630만원 파격조건

쉐보레가 12월 한달간 ‘메리 쉐비 페스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연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스파크 최대 270만원, 트랙스 최대 340만원, 말리부 최대 560만원, 임팔라 최대 630만원에 이르는 파격적인 판매 조건을 마련했다.

이밖에 스파크, 트랙스, 말리부, 임팔라 등에 최대 60개월 무이자 가능한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스파크는 월 10만원으로 스파크

를 구입할 수 있는 10년 초장기 할부 프로그램을 지난달에 이어 연장 운영한다. 전 트림에 걸쳐 기본 130만원을 할인하고 기본 할인 미적용 시 LG 트림 건조기를 출고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한편 라보와 다마스는 최대 140만원을 할인하며, 1.9% 36개월의 저리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내 퍼포먼스 스포츠카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연 쉐보레 카마로SS는 2018년형 모델을 대상으로 최대 550만원을 할인한다. /정연우 기자



화학기술의 정점  
미국 최대 화학기업 **첨단소재사업인수**

전기차 산업의 중심  
유럽에 **전기차배터리 공장설립**

# 세계가 이노베이션한다 SK이노베이션한다

에너지·화학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이 캠페인은 Google의 tiltbrush를 활용해  
가상공간에 3D 이미지를 형상화한 VR아트입니다

무한한 에너지의 바다  
남중국해 **원유 탐사 성공**

떠오르는 자동차 시장  
남아시아를 **사로잡은 윤활유기술**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종합화학

SK 루브리컨츠

SK 인천석유화학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 시세차 최대 6억... 9억 있어야 청약 '그들만의 로또'?

## Q 르포 | 강남 '디에이치 라클라스' 견본주택 가보니

총 848가구 중 210가구 일반분양  
교대·반포 등 4개 지하철 '역세권'

분양가 9.4억원~22.8억원 책정  
발코니 확장면 최대 9천만원 추가

올해 사실상 서울 강남의 마지막 로또 단지인 '디에이치 라클라스'가 지난달 30일 견본주택을 열었다. 이 아파트는 래미안 리더스원(서초우성1차재건축)에 이어 청약제도 개편 전 강남에 들어서는 마지막 단지다. 아울러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5억원가량 저렴해 '현금 부자'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 ◆ 강남에 워드러블 역세권까지 '눈길'

이날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641 현대 힐스테이트 갤러리 3층에 문을 연 '디에이치 라클라스' 견본주택 현장은 한산했다.

방문객의 발걸음이 뜬 데다 프리미엄 브랜드에 걸맞게 이른바 '뒤편방' 등도 운영을 못하게 돼 있어 전반적으로 조용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지난달 방문객이 몰리며 이례적으로 평일(수요일)에 견본주택을 연 '래미안 리더스원'과는 상반된 분위기였다. 전 주택형의 분양가가 9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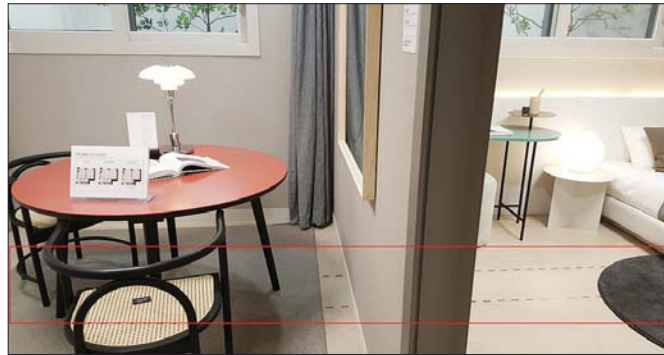
을 초과해 중도금 집단체출이 안 되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조민철 현대건설 분양소장은 "조합협의, 분양승인 등이 급박하게 진행되며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문의전화 하루에 130통 정도 꾸준히 왔고, 견본주택 개관 직전엔 400통 이상의 문의가 오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에이치 라클라스는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맨션3차(반포동32-8번지 일원)를 재건축하는 단지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5층, 6개 동, 전용면적 50~132㎡, 848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21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로는 50㎡A가 24가구, 59㎡B 24가구, 59㎡C 27가구, 84㎡A 13가구, 84㎡B 32가구, 84㎡C 77가구, 84㎡D 32가구, 104㎡B 1가구, 115㎡ 2가구, 132㎡A는 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에는 59B, 84C, 115A 등 3개 타입의 유니트가 전시됐다.

단지는 '고급화' 느낌이 강했다. 강남 최초로 적용되는 비정형(유선형) 외관을 적용했으며 내부 인테리어도 타입별로 가족공간 강화형, 주방 세라믹타일 등 다



'디에이치 라클라스' 견본주택에 전시된 유니트 내 확장(유상 옵션) 구간. /채신화 기자



지난달 30일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641 현대 힐스테이트 갤러리 3층에 개관한 '디에이치 라클라스' 견본주택 내부. /채신화 기자

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입지가 호평을 받았다. 단지는 지하철 9호선 사평역과 2·3호선 교대역이 도보권이다. 3·7·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7호선 반포역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워드러블(4개)' 역세권을 갖췄다. 강남 업무권역까지 5분 이내, 시청 및 여의도까지 30분에 이동 가능하다.

### ◆ '로또'는 '로또'인데...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도 눈길을 끌었다.

디에이치 라클라스의 3.3㎡(1평)당 평균 분양가는 4687만원이다.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4489만원)보다는 약 200만원 높게 책정됐으나, 인근 시세와 비교하면 5억원 가량 낮은 수준이다.

디에이치 라클라스의 분양가는 9억

3800만원(50㎡A·2층)~22억7700만원(132㎡A·4층)으로 책정됐다. 전용 84㎡만 비교하면 디에이치 라클라스의 분양가는 14억6900만~17억4700만원으로, 인근 래미안에스티S의 9월 매매가 21억원(9층)에 비하면 3억5300만~6억2100만원 저렴한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평형 내에서도 분양가가 차이나고, 유상 옵션인 발코니 확장이 불가피해 실제 분양가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84㎡의 경우 최고가는 17억4700만원(84B·10층 이상), 최저가는 14억6900만원(84D·2층)이다. 같은 타입이어도 평당 분양가가 1000만원 가량 차이 나는 셈이다.

추가 옵션 비용 부담도 있다. 84A의 경

우 기본 발코니 확장형(2160만원), 멀티 다이닝형(주방 확장·2184만원)을 선택하면 분양가에 4000만원 이상 추가된다. 84B 타입의 경우 주방과 공부방 등을 모두 확장할 경우 9000만원 이상 추가된다.

자녀와 함께 견본주택에 방문한 신 모씨(62)는 "애초에 분양가 외 최소 5000만 정도 옵션비로 생각하긴 했는데, 주방이나 침실 등 일일이 확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선택권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도금 집단체출까지 불가해 '그들(현금 부자)만의 리그'가 열릴 전망이다. 디에이치 라클라스는 계약금(20%)을 합쳐 8억6500여만원의 현금이 있어야 한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 전국 14곳서 4285가구 1순위 청약 접수

### 분양캘린더

반포 '디에이치 라클라스' 4일 청약

통상 분양비수기로 꼽히던 12월이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건설사들이 9·13 대책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분양 일정을 미루면서 연말에 물량이 몰린 영향이다.

2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14곳에서 총 4285가구(오피스텔·임대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내주 가장 주목받는 청약 단지는 강남 권에서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라클라스'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디에이치 라클라스는 4일부터 청약 일정을 시작한다.

강북에서도 은평구 음암1구역을 재개발하는 '힐스테이트 녹번역(시공 현대건설)'이 분양한다.

비조정대상지역인 경기 부천시에도 삼성물산이 송내동 427-32번지 일대에 송내1-2구역 재개발 단지인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 1순위 청약을 받는다. 경기 안양시 호계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인 '안양호계 두산위브'도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12곳, 계약은 12곳에서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한 주 쉬어간다.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청약 시스템(아파트투유) 관련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채신화 기자

## 주식형펀드 2% 수익... 순자산 1.8조 증가

### 주간펀드동향

코스피지수 반등에 힘입어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은 2%대를 기록했다. 상승세를 기대하는 자금이 유입되면서 순자산은 1조8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2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한 주(11월23~11월29일)간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비둘기파적(안화적 통화정책) 자세 변화 기대감으로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전주 대비 2.13% 상승한 2114.10을 기록했다. 해당기간 외국인이 3253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선진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모건스탠리 리캐피탈지수(MSCI) 월드인덱스(World Index)는 전주 대비 2.56% 상승한

2034.89포인트를 기록했고, 신흥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MSCI EM 지수는 전주 대비 2.26% 상승한 998.05를 기록했다

해당기간 국내주식형펀드는 2.02% 상승했다. 코스피가 오름세를 보이자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자금 유입으로 순자산은 1조8060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형펀드 수익률은 0.84%를 기록했다. 지역별 분류에서는 북미(3.47%), 일본(2.23%), 글로벌(1.95%) 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러시아(-1.07%), 중남미(-0.65%), 베트남(-0.64%) 펀드가 동일 기간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익률을 보였다. 글로벌주식 유형을 중심으로 자금유입이 나타나면서 순자산은 2500억원 늘었다. /손영지 기자

### (최근 3년간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현황)

(\* 추정치, 단위·만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YoY
2018	23.7	23.7	28.1	28.4	28.4	30.3	33.3	36.1	32.6	38.3	*31.0	*33.0	370.9	+19.0%
2017	48.9	45.9	26.4	15.9	17.3	18.2	20.7	22.6	22.9	24.5	22.4	26.1	311.7	-55.1%
2016	45.7	42.4	50.0	60.1	61.5	67.1	82.3	74.8	61.2	58.9	45.2	45.7	694.8	+47.5%

/자료=통계청

## 中 관광객 유입... 4분기 텍스리펀 대행 호황

### 株라클라의 종목

#### 글로벌텍스프리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늘고 있다. 지난 10월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전월보다 17% 이상 늘어난 38만3000여명을 기록했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연구원은 2일 중국 관광객 증가로 세금 환급(Tax Refund) 사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텍스프리'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텍스리펀(Tax Refnd)은 정부가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10%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글로벌텍스프리는 세금 환급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대신 환급금의 일정비율(25~30%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하고 있다.

지난해 사드문제가 불거진 이후 중국

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사후면세점 시장이 축소됐고, 글로벌텍스프리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대해 최 연구원은 "지난 3월 이후 중국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10월 우리나라를 방문한 전체 외국인 관광객수가 127만 명을 기록하며 가장 호황이었던 2016년 130만명 수준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분기 국내 텍스리펀 시장 역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올해 국내 텍스리펀 대행 시장은 전년보다 12.3% 증가한 72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특히 글로벌텍스프리는 점유율 40%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어 완만한 실적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 연구원은 "글로벌텍스프리는 내년 1월 국내 Tax Refund 시장의 점유율 15%를 차지하고 있는 '케이티스'의 세금 환급 사업부 인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후 동사의 국내 점유율은 60%까지

확대돼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시장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6년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의 중앙환급 창구운영사업자로 단독 선정되면서 싱가포르 내 가맹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시장의 경우 여전히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형 아울렛 등을 중심으로 가맹점을 넓히며 환급창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유럽의 Tax Refund 시장은 연간 1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부가세율이 20%를 넘어서는 등 세계 최대의 Tax Refund 시장이다.

최 연구원은 "물량 출회 우려와 함께 대규모 CB 발행으로 주가 등락에 따른 영업 외손익 변동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LH-한국지역난방공, 쿠웨이트 사업 MOU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쿠웨이트 압둘라 스마트시티 지역난방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난방사업이란플랜트에서 생산된 냉수를 일정 구역에 집단 공급해 냉방하

는 시스템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쿠웨이트 압둘라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등에서 효율적인 지역난방 추진을 위해서는 양기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쿠웨이트 압

둘라 스마트시티 등 지역난방사업 분야 정보와 경험, 기술을 공유하고 국내 기자재 생산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중동지역은 1년 내내 무더운 날씨로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에어컨 등 냉방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개별냉방을 지역난방으로 대체하면 에너지 사용량의 약 30%를 절감할 수 있다. /채신화 기자



# 내년 韓경제 ‘흐림’... 대기업, 신용등급 하락 ‘전전긍긍’

네거티브 붙은 우량기업 속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전망도

2019년 잿빛 경제전망에 대기업들이 신용등급 하락 걱정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신용평가사의 ‘칼날’이 매서워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최근 신용등급 상승 기조가 둔화된 가운데 ‘네거티브’ 딱지가 붙은 ‘AA’급 우량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사들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부정적 관찰대상(네거티브)에 올리고 3~6개월 사이에 등급을 강등한다.

2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곳도 각각 7개사와 8개사다.

최근 신용사들이 기업 신용등급을 네거티브에 올리고 실제 등급을 하락하는데 걸리는 시간적인 간격도 짧아지는 모습이다.

국내 대기업 계열의 한 임원은 “반도체 경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경제 전반에 저성장의 그림자가 짙는데 우리라고 좋을 까닭이 있겠는가. 이대로 가다간 구조조정해야 할 판이다”면서 “설비투자라도 늘리려면 외부 자금을 끌어써야 하는데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 걱정이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국내 비금융 민간기업 23개사 중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벌 등 현대차그룹 계열

(신용등급 및 관찰대상 현황)

구분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AAA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AA+	포스코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기아자동차, 에스케이이엔에스 파주에너지서비스(보중) 롯데쇼핑(선순위, 보중) 롯데칠성음료(보중) 롯데제과(보중)	포스코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기아자동차, 롯데쇼핑(선순위, 보중) 롯데칠성음료(보중), 롯데제과(보중) 롯데푸드(보중), 롯데로지스틱스(보중)	포스코	에스케이이엔에스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AA		롯데카드, LG디스플레이	KB증권	롯데카드, LG디스플레이	미래에셋대우KB증권	롯데카드 LG디스플레이 현대위아
AA-		한국항공우주산업		파라다이스	엔씨소프트	파라다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A+	여천NCC, 현대다이모스(↓)	DGB생명보험(후)	엔에이치농협캐피탈 한화손해보험(후) 여천NCC, 롯데정밀화학 현대다이모스(↓)	엘에스엠트론, 파라다이스글로벌	엔에이치농협캐피탈 롯데정밀화학 현대다이모스(↓)	파라다이스글로벌
A	아주캐피탈, 태광실업, 풍산	엘에스엠트론(유동적)	메리츠캐피탈, 한화투자증권 태광실업	한국토지신탁	메리츠캐피탈, 아주캐피탈 한화투자증권, 태광실업, 풍산	코람코자산신탁
A-	금호석유화학, SK실트론 GS건설, 태영건설 에이제이렌터카(↓)	두산, SK해운(↓)	KT투자증권, 금호석유화학 GS건설, 태영건설 에이제이렌터카(↓)	삼화페인트공업, 두산, SK해운(↓)	금호석유화학, SK실트론 GS건설, 현대엘리베이터	두산, 한화켄러리아타임월드 현대중공업

사 4개사와 SK텔레콤을 ‘부정적’ 등급 전망 대상에 올려놨다.

크리스 박 무디스 기업평가담당 이사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는 최근 실적이 많이 저하됐고 향후에도 실적 개선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을, SK텔레콤은 올해 대규모 인수합병과 더불어 수익성이 약화된 부분을 각각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내년이 걱정이라고 한목소리를 낸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초 ‘2019년 한국경제 대전망’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동반한 물가 상승), 중기적으로 고실업, 장기적으로는 성장과

복지, 재정 건전성의 트릴레마(trilemma·동시에 세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한 것은 국내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 측면에서 비용이 높아지는 쇼크가 발생하면서 실질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2.7%, 2.8%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9월에 내놨던 전망치를 유지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6%로 기존보다 0.

3%포인트 낮췄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까.

한국신용평가는 단기 업황 전망이 우호적인 국내 업종으로 메모리반도체를, 비우호적인 업종으로 자동차·조선·유통·건설을 꼽았다. 유건 한신평 기업평가본부장은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 수익성이나 재무건전성을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좋은 상황이지만 매출 증가 지표를 보면 둔화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부각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이나 외부환경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향후 업황이 좋아지는 업종보다는 나빠지는 업종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증권 박진영 연구원은 “올해 등급 상황을 이끌었던 화학, 철강, 건설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업 실적 둔화 가능성이 있다. 상징적이라 할 수 있는 현대차의 등급 하향 가능성이 부각된다”면서 “다만 신용등급 상향추세가 둔화된 것이지 신용등급 방향성이 급격하게 하락 전환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신용등급과 채권 평가가격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은 자동적으로 하락한다. 네거티브 딱지가 붙은 경우 등급하락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이 인수를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中 무역구조 고도화... 韓 ICT 전략 재점검해야”

교역시장 경쟁구도 재편 가능성

기술집약형 수출품 비교우위 강화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중국의 역할이 상위단계로 발전하며 세계 교역시장의 권역 간 경쟁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변화에 우리나라도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수출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된 ‘최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 특징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무역규모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함께 고속 성장을 거듭하면서 세계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 추세가 둔화되는 모양새다.

연평균 20% 이상 성장세를 보였던 중국의 수출입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 자릿수로 둔화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들어 내수중심의 중속성장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대외무역에 적지 않은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형태별로 보면 2000년대 중간재 수입에 의존했던 가공무역이 퇴조하고 최종재를 중심으로 일반무역이 전체 수출입액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등 무역형태가 고도화됐다.

국가별로는 부품 등의 중간재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2000년대 전체 무역의 절

<중국제조 2025 전략>

(자료=한국은행)

분류	주요 내용
1. 단계별 목표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2025년) 제조업의 IT 경쟁력 확보를 통해 제조강국 단계에 진입</li> <li>■2단계(~2035년) 글로벌 제조강국의 중간 수준까지 도달</li> <li>■3단계(~2045년) 글로벌 제조강국의 선도적 지위로 도약</li> </ul>
2. 10대 전략산업	차세대 IT기술, 고정밀 수직제어 및 로봇, 항공우주, 첨단해양장비, 선진 케모 교통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 신소재, 바이오
3. 주요 목표치	영업이익 단위당 R&D 투자 비중 ('15년 0.95% → '25년 1.68%)

반 이상을 차지했던 선진국 비중이 빠르게 축소되고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신흥국 비중은 확대됨에 따라 교역대상국이 다변화됐다.

품목별로는 최근의 수출입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통신기기,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늘어나는 등 중국 무역의 기술구조에도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앞으로는 세계적 제조강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중국제조 2025’와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국 등과의 통상분쟁이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제조 2025’는 고기술의 최종재가 수출을 주도하는 일반무역 중심의 고도화된 무역구조 정착을 견인하고 있다.

보고서는 선진국과의 통상갈등은 아시아 역내 무역 거래를 촉진해 과거 중국의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남아시아 신흥국이 기존 중국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체하느냐에 따라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유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중국 정부의 전략적 육성에 힘입어 고

부가가치 중간재 생산이 가능해진 자동차, 무선 통신기기 등 일부 제품의 경우 한 단계 높은 ‘중간재 특화형’ 구조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이처럼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하부에 위치했던 중국의 역할이 상위단계로 발전되며 세계 교역시장의 경쟁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권역이 중국과 동남아 신흥국간 또는 한국(일본)·중국·동남아의 다자간 분업 체제를 형성해 역내 무역결합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아시아·미주·유럽 권역 간 경쟁구도가 보다 뚜렷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수출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시장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점차 증가하면서 경합관계에 놓인 제품군이 늘어날 것이므로 ICT 등 기술집약형 수출품의 비교우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내외여건 변화로 중국의 소비시장 확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점에 비춰 혁신제품 개발과 전자상거래 등 유통망 확충에 보다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주 기자 hj9@

## 보호무역주의·신흥국 금융불안 지속

수출기업, 대외 리스크 확대 전망  
소비재 등 고부가가치화 추진 강조

오는 2019년에는 미·중 통상분쟁에 글로벌 통화 긴축, 신흥국 금융불안 가능성 등도 제기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는 세계경제 전망, 글로벌 통상환경 및 환율 전망, 주요 수출 시장 및 품목, 신북방 정책 등을 다루는 ‘2019 세계경제 전망 및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렸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내년에는 미국, 유럽,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국까지 올해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중 무역분쟁 영향 가시화, 주요국 국제금리 오름세, 유가 하락 및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대외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제헌정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차장이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중국 제재는 중국의 첨단산업 경제의 일환이며 중국도 ‘중국몽’ 실현을 위해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우리 기업들은 분쟁 장기화에 대비해 미중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사업 계획 수립 시 통상 이슈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국내의 환율전망도 제기됐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내년에는 원화 약세 압력이 우세하나 하반기 이후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연방준비제도(FRB)의 금리 인상 계획에 따른 환율 변동성 및 신흥국 위기 가능성 등을 염두에 뒀다”고 말했다.

‘2019년 수출품목 및 시장전망’을 발표한 문병기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올해 우리 수출은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수출 6000억 달러 최초 돌파, 반도체 수출 1000억 달러 달성 등의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내년에는 자동차, 철강,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의 전망이 어두워 소비재·신산업·부품산업 등을 중심으로 수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명수 국립블라디보스톡 경제서비스대 교수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북방시장이 좋은 대안”이라며 “화장품, 의약품, 보건 의료 등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북방시장에 접근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진출을 통한 현지화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9@



# 워라벨·소확행 효과... 키보드·게임기 매출 '굉충'

이마트, 스마트 모빌리티 330% ↑  
피규어 등 취미·키덜트 상품 인기  
아웃도어·캠핑용품 등 레저도 호황  
“취미생활 관련제품 내수 소비 견인”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등 개인의 행복과 여가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올해 대형마트에서도 취미생활 관련 용품이 매출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지난 1월부터 11월 25일까지 매장에서 판매된 850여개 상품군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취미생활과 관련된 용품이 내수 소비를 이끌었다고 2일 밝혔다.

이마트의 올해 히트 상품군은 전기 자

전기와 전동 키보드, 전동휠, 전기오토바이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 상품이었다.

지난해에는 상품군별 매출 순위에서 117위였는데 올해는 19위로 훌쩍 뛰어올랐다. 매출액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330.6% 신장했다.

게임 관련 제품도 많이 팔렸다. 게임용 키보드와 마우스, 헤드셋 등 게임 관련 상품군 매출은 지난해 48위에서 올해 26위로 22계단 뛰었고, 매출액도 117.9%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게임용 노트북이 118.2%, 게임용 헤드셋이 484.4%, 게임용 키보드가 101.5%, 게임용 마우스가 107.2% 등 대부분 2배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

게임기와 디지털게임 콘텐츠 상품군도 매출 순위 101위에서 35위로 뛰어올랐다. 롯데마트에서도 1월부터 11월 28일까지

매출을 분석한 결과 '키덜트'(키즈와 어덜트의 합성어/어린이의 감성을 추구하는 어른)를 위한 장난감과 게임 관련 상품이 '효자' 노릇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가 자체 출시한 '날아라 슈퍼보드', '건담', '드래곤볼', '원피스' 시리즈 등 인기 캐릭터 피규어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0% 이상 신장했고, 전체 피규어 콜렉션 매출도 68.8% 증가했다.

김경근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MD는 “지난 해부터 토이저러스는 7080 아빠 세 대들에게는 추억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토종 캐릭터를 중심으로 피규어를 선보이고 있다”라며, “단순한 키덜트 상품을 넘어, 국내 캐릭터 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토이저러스가 다양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독점 제안 매장으로 고객들에게 각인되는 계

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롯데마트는 토이저러스를 '하비(Hobby/취미) 중심의 독점 제안매장'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기존 유아동 완구 카테고리 중심에서 전략적으로 피규어, 프라모델, 게임, 스마트 모빌리티 등 신규 카테고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내에 출시된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 등 전자 게임기 관련 매출은 91.6% 신장했으며, 야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레저·아웃도어 관련 매출의 신장도 두드러졌다.

롯데마트 측은 “아웃도어 관련 매출은 15.9%, 캠핑용품은 24.9%, 등산의류는 600% 매출이 신장했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날아라 슈퍼보드 피규어 4종 모음컷 ▶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 직장인 10명 중 2명 “직무 적성에 안 맞아”

잡코리아, 직장인 299명 설문  
직무 적성 맞을수록 회사 만족도 ↑

직장인 5명 중 1명은 현재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성에 맞는 직무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일수록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2일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299명을 대상으로 '직무와 적성'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8.4%는 '현재 작성에 맞지 않는 직무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현재 직위가 적성에 잘 맞는다'는 직장인은 26.8%였고, 그 외 54.8%는 직무와 적성 간 적합성이 '보통 수준'이라고 답했다.

특히 적성에 맞는 직무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일수록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의 회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직무가 적성에 잘 맞는다고 답한 그룹에서 회사에 '만족한다'는 답변이 46.3%로 가장 높았다. 반면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답한 그룹

의 회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 비율이 70.9%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직장인 절반 정도는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연봉이 줄어도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적성에 맞는 일을 한다면 연봉이 줄어도 이직하겠는지' 묻자 53.5%가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적성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연봉 삭감 범위는 '100만원 미만(40.6%)', '100만원~300만원 미만(38.1%)', '300만원~500만원 미만(10.0%)' 순으로 크지 않았다.

한편 적성에 맞춰 잘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직장인은 소수에 불과했다. '현재 하는 일은 어떤 일인지' 묻는 질문에 '잘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답변이 14.4%로 가장 적었다. 해당 질문에 대한 1위 답변은 '잘하지도 좋아하지도 일을 한다(36.5%)'는 답변이 차지해 안타까움을 자아냈고, 2위는 '잘 하는 일(29.4%)' 3위는 '좋아하는 일(19.7%)' 순으로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 hys@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 반납하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이달 말일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달 31일까지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반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6지사·9센터)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 시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홈페이지)'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관계자는 “건전한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부정수급을 하였으면 자진신고를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유류세 인하 한달... 휘발유값 1400원대로

(대구·인천 등 일부지역 평균 판매가)

1년 만에 평균 판매가격 1400원대  
서울 은평·금천구 1500원 밑으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가는 가운데 서울과 대구, 인천, 경남 등의 일부 지역에서 휘발유 가격이 1400원대로 내려가고 있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 기준으로 대구(1476.06원)·인천(1499.73원)·경남(1496.09원)의 보통휘발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1500원 밑으로 떨어졌다.

평균 판매가격은 해당 지역 개별 주유소들의 판매가격을 합한 값을 그 지역 전체 주유소 개수로 나눠서 계산한다.

전국 17개 지역 가운데 1400원대의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등장한 건 1년 만이다.

지난해 11월 셋째 주 경남 지역의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1494.93원을 기록한 이후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며 1400원대의 휘발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정책과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기름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평균 판매가격은 1604.42원이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지역에 따라 보통휘발유 가격이 1400원대로 떨어진



2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고객들이 주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곳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강북구(1488원)와 금천구(1478원), 은평구(1499원), 중랑구(1483원)에서 1500원 밑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광진구(1508원)도 곧 1400원대로 휘발유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0년전과 달리 올해의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08년 정부는 1l 당 82원의 가격을 내렸지만 정책 시행 첫 주에만 약 30원이 떨어졌고 그 이후부터는 내림 폭이 1.8원 정도에 그쳤다.

당시에는 국제 석유제품 시장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급증했고 환율 또한 강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효과가 상쇄된 것이다.

반면 올해는 산유국들의 감산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동시에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대한석유협회는 “국제유가는 미 원유 재고 증가 등으로 하락했다”며 “국내제품 가격도 국제유가 하락 및 유류세 인하 효과로 인해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유사들은 현재의 국제유가를 참고해 다음 주 출고가를 결정, 해당 출고가가 적용된 기름이 실제 소비자들에게 도달하는 기간은 약 2~3주가 소요된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KISA, 핀테크기업 동남아 진출 지원

인니·베트남서 비즈니스 상담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국내 핀테크 기업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핀테크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열었다고 2일 밝혔다.

KISA는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해외진출 희망국가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인도네시아, 베트남 2개국에서 '핀테크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를 지난 26일, 29일 각각 개최했다.

KISA는 공모를 통해 국내 핀테크 9개 기업을 선정해 상담회 참가 기회를 제공했다. 상담회 참가 기업들은 현지 PG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11월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핀테크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 진행 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송금업, P2P대출, 자산관리 등 총 42개사 대상으로 IR피칭과 1:1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

그 성과로 이번 상담회에서 참가 기업

들은 총 11건의 업무협약과 1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우선 인도네시아 핀테크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부동산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권 대출 금리 예측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 업데이트가 인도네시아 현지 IT솔루션 업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슈어테크 솔루션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기업 위닝아이(생체인식), 비아이큐브(블록체인·클라우드), 페이콕(간편결제)은 현지 시장에 솔루션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베트남 핀테크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기반의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내 기업 페이콕이 현지 기업 2개사를 대상으로 '베트남 시장 내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NAVER **성산일출봉 스위트엠 프레시빌**

# 마음 같아선 한 10개쯤 사두고 싶은 아파트 세컨하우스+실거주+투자(임대)

우도 (해양도립공원)

성산일출봉 (세계자연유산)



삼면 바다 조망

제주도차고지증명제시행 100% 자주식 주차확보

주택 수 해당 無

중도금전액 無이자

분양권 전매 가능

다시없을 투자기회, 매력적인 특별혜택  
〈제주 제2공항(추진중) 10분대 높은비전〉



조망을 극대화한 테라스 설계 (일부세대)



단지 중앙 옥외중정



100% 자주식 주차장 (오피스텔 실당 1대, 연립주택 세대당 1.7대)

성산일출봉 제주최초 스테이크이션하우스 SWEET M 프레시빌

오피스텔 연립주택 분양중

시원 M 대한토지신탁(주) 시원 S 서원 위탁 주서우A&D



분양 문의

02-553-4200

\* 부동산 개발업 등록사업자 대한토지신탁(주) 등록번호 서울080011 \* 주: 영남소주제자신탁(주) \* 시원: 대한토지신탁(주) \* 시원: 서원중견건설(주) (주) \* 위탁사(주) 서우에이앤디 \* 분양대상사(주)에이앤디엔터 \* 대지(위) 차주(주) 서원포시 성산읍 성산과26-2번지 외 4번지 \* 우도 및 영도지하3층~지상7층 오피스텔, 연립주택, 부대시설 \* (02)553-4200 \* 연면적 15,751.30㎡ \* 최종 인. 허가 내역에 따라 면적 및 당량 등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올바른 권익보호를 위해 법정 개당 단위(m)를 사용합니다. \* 본 홍보물은 면적 및 인세 고지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와 일러스트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건물주 및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위치, 용이 다른 소비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기 개발계획 관련 사항은 해당 사업주체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취소 및 축소,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북제재, ‘완전 비핵화’까지 유지… 金 ‘서울답방’은 유효

## 6차 한미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 ‘진전’  
기존 제재들 강력 이행 유지해야  
북미·남북회담 관련사항 코멘트  
2차 북미정상회담 희망도 언급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현재의 대북 제재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유지해야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카드도 여전히 유효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 공감대를 표시하고 한·미 정상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해 내년 초 예정된 북미정상회담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채 한 달 남지 않은 올해는 아니더라도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성사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현지에서 30분간 양자회담을 갖고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균정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이를 놓고 “비핵화가 경제적 번영과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북한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제재들의 강

력한 이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노력에 추가적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 두 정상은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추진하는 문 대통령의 의견에 트럼프 대통령도 공감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이튿날인 1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는 평화 안에서만 가능한 가운데 G20 정상들 모두 한반도 평화를 변함없이 지지했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의 성공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이 끊임없이 연내 답방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왔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라

며 “다만 연내 답방이 아직 열려 있고 유동적이지만, 우리 생각만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사항을 각각 언급하고 그에 대해 서로 코멘트하면서 공감대를 확실하게 가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차기 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을 위한 또 다른 역사적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이른 시일 내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거대한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면서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11월 열릴 예정이 었다가 미뤄진 북미고위급회담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미 간에도 굉장히 소통은 정중하게 잘 되고 있다. 종전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급적 빨리 열려야겠다는 데 두 정상 생각이 일치했다. 큰 계기가 될 것 같다. 지난번(1차 북미정상회담)보다 더 진도가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美·中 90일간 관세전쟁 휴전 합의도출 못하면 ‘25%’ 부과

내년 초부터 세계 경제 1,2위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일(현지시간) 무역 담판을 통해 추가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휴전’하기로 했다.

세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업무 만찬을 마친 뒤 낸 성명에서 미국은 향후 90일 동안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2천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려던 계획은 일단 보류됐다.

대신 양측은 이 기간에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을 바로잡기로 했다. 만약 협상이 실패한다면 보류한 ‘25%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미·중이 무역전쟁의 확산이나, 휴전이나의 갈림길에서 ‘휴전’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전쟁 장기화로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샌더스 대변인은 “미·중은 앞으로 90일 동안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 사이버 침입·절도 등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양측은 이 기간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만약 이 기간 내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10%의 관세는 25%로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중국이 무역 불균형 축소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농업, 에너지, 산업 및 기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할 것”이라며 특히 미국산 농산물은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중 양국 정상이 추가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이 국무위원은 이날 미중 정상회담을 가진 뒤 브리핑에서 “두 지도자는 새로운 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상호 방문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왕 국무위원은 미중 양국이 자국 시장을 상대방에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면서 양국 정상들의 이번 회담에 대해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합의 덕분에 양국 간의 경제적 갈등이 더 악화하는 일을 막게 됐다. 또한 ‘윈윈’ 협력을 위한 새로운 공간도 열렸다”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을 하면서 우호적이고 솔직한 분위기에서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 2시간 30분 동안 깊이 있게 교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왕이 국무위원은 이어 양측이 중요한 공통된 인식에 도달했다면서 이번 회담이 향후 한동안 중미 관계를 위해 방향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두 정상이 양국 관계를 꼭 성공시켜야 하며, 꼭 성공될 것이라면서 조율과 협력, 안정을 기조로 하는 관계를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두 정상은 이날 현지 시각으로 오후 5시 47분부터 2시간 30분 동안 무역 담판을 했다. 이는 애초 예정된 시간보다는 30분 정도 늘어난 것이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아르헨티나 대통령 관저에서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 G20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담에서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 G20 양자회담장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 文 대통령, 아르헨·남아공·네덜란드와 ‘정상회담’ 양국 협력·한반도 평화·北 비핵화 ‘한 뜻’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방안과 한반도 문제 공조 등을 놓고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아르헨티나와는 양국 간 경제·통상 등 실질협력 강화를, 핵 개발 프로그램 폐기 경험을 갖고 있는 남아공과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지속적인 지지를, 네덜란드와는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각각 약속했다.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양국간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 관계’를 체결했을 당시 열린 데 이어 14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는 동시에 그간 아르헨티나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한 데 사의를 표했다.

이에 마크리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절대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아공 정상간 회담은 6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그간 남아공 측이 보여 준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19~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이자 과거 핵 개발 프로그램 폐기 경험을 가진 남아공 측의 역할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남아공은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한 경험이 있는 만큼 비핵화 과정에 있는 북한에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북한을 설득하고 비핵화로 이끄는 데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

력을 높이 평가하고, 남아공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

한·네덜란드 정상은 지난 2월 평창올림픽에서 마리를 맞은 후 올해 두 번째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어 네덜란드가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및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이라는 중책을 맡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뤼터 총리는 “긍정적 상황 변화를 이끈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지속해서 지지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특히 양국 교역량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네덜란드의 대한 투자액도 유럽 국가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양국 간 교역·투자가 증진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승호 기자



청년기업가와 예비역 장교의 콜라보

# “명예롭고 존중받는 군사문화 창출 기업으로 거듭날 것”

군복 제작업체 ‘하이퍼 오프스’ 탐방

‘굿디자인’ 산업부장관상 수상

“주위의 만류에도 군납품 포기안해 입소문으로 ‘캠벳제품’ 널리 알려”

패션을 전공한 젊은 기업가 윤현수(주)토브더가먼트메이커 대표(36)와 예비역 소령 출신의 (주)연병장 최재운 대표(43)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에게 더 좋은 전투복을 만들어 주기위해 하이퍼 오프스(Hyper-ops)라는 브랜드로 의기투합했다.

청년 기업가와 예비역 영관 장교의 같이 추구하는 경영철학은 ‘군인의 명예와 존중’, ‘국민에 신뢰받는 군사문화 창출’이다. 패션의 거린 서울 양구정 거리에 위치한 하이퍼 오프스 사무실을 2일 불쑥 찾아갔다. 주문 문의로 윤 대표와 최 대표는 휴대전화를 귀에서 뗄 수 없을 정도로 바빠 보였다.



최재운(주)연병장 대표(왼쪽)과 윤현수(주)토브더가먼트메이커 대표가 하이퍼 오프스 제품들을 배경으로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윤 대표는 한복집을 하였던 외할머니와 패션디자이너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패션을 전공해 오랫동안 OEM(주문자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아웃도어 의류를 만들어 왔다.

잠시 업무를 내려 놓은 그는 기자에게 “인도 등 해외 군납업무를 하다가 우리 군

인들이 우리나라 보다 가난한 나라보다 좋지않은 군복을 입고 있다는 현실을 알았을 때 속이 상했다”며 말을 꺼냈다.

이어, “주위에서는 이윤도 내기 힘든 군납사업 왜하러 하나며 말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면서 “그렇게 고민 중에 군에 대한 이해가 높은 최 대표를 만나, 설득해

지난 8월 하이퍼 오프스를 공개 론칭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나는) 1999년 육군학사장교 33기로 임관해, 특전사 등에서 복무하다가 육군 소령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많은 사업을 펼쳤지만 실패라는 쓴 잔을 맛보아 했다”면서 “그러던 중 내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알렸던 캠벳셔츠를 통해, 윤 대표를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론칭이후 약 5개월 동안 현역 군인, 경찰 특공대, 소방관들의 입을 통해 하이퍼 오프스의 캠벳셔츠와 캠벳팬츠는 널리 알려졌다. 지난 달 2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굿디자인(GD)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여받았다.

무거운 방탄복을 입고 전장을 누비는 군인들의 열피로를 덜어주는 캠벳셔츠, 눈·비와 강한 바람에서 군인을 보호해주는 하드셀(방수자켓)을 기반으로 한 하이퍼 오프스의 제품들이 우수성을 인정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 윤 대표는 “지난 5개월 시행착오도 많았다. 하지만 최 대표와 생산·기획·디자이너의 입장이 잘 맞았기 때문에 상당한 발전을 해 온 것 같다”면서 “미국의 아웃도어 쇼에서 우리 제품이 많은 관심을 받았고 해외 주문도 받았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일선의 군인·경찰·소방관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으려 노력한다”면서 “육군의 첨단부대에 하이퍼 오프스가 자체개발한 위장패턴과 전술피복이 납품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군인들에게 사랑받는 군복을 통해, 군인들이 명예롭고 존중받는 군사문화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아직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헌신하는 군인들을 위한 헌신’이란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세계적 브랜드로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etroseoul.co.kr

〈해양수산업 부문별 5년간 누적 고용효과〉

(단위: 시간, 명)

순번	업종	평균 감축시간	고용 효과	순번	업종	평균 감축시간	고용 효과
1	해운업	0.4759	514	6	해양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558	20
2	항만업	0.9929	694	7	해양관광업	0.8724	52
3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1.4715	4,965	8	수산물생산업	0.2104	246
4	해양기기·장비 제조업	1.8653	1,210	9	수산물가공업	3.5995	4,085
5	해양건설업	0.8286	99	10	수산물유통업	0.501	757
총계				평균감축시간			고용효과
10개 해양수산업 총계						1.07	12,642명
제도 적용 대상 산업총계(수산업 및 특례업인 해운업 제외)						1.09	11,882명

/자료=저자 작성

## 해양수산업체 94%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없다”

KMI, 해양수산업분야 근로 현황

인건비·업무능력자 구인 등 부담 ‘신규 채용계획 있다’ 15% 불과 맞춤 제도, 채용 등 지원 마련을

최근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업분야 사업체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 곳은 6%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KMI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분야 근로 현황 및 제도 시행의 영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여부에 대해 대응방안이 ‘있다’는 응답이 6.1%였으며 대응방안이 ‘없다’는 응답이 93.9%로 조사됐다. 이는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부진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무엇보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비율이 높으며,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대응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영세기업에 특화된 인건비 부담 지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업 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의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계획은 15.2%로 신규채용의 애로사항으로 인건비 부담, 업무 능력 보유 근로자 구인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로는 ‘목표 생산량을 맞추지 못해 연간 매출액 감소’가 우려된다는 응답이 57.6%로 가장 높았으며, ‘기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감소로 인한 인력 이탈 우려’가 47.3%, ‘계절적·일시적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불가’가 36.3%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희망하는 정

부지원제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중산자 임금지원(51.0%), 법 준수 기업 혜택 제공(28.1%), 인력 교육 지원(17.8%), 자동화설비 구축 지원(17.2%) 순으로 나타났다.

자금지원, 혜택 제공 등 직접적 지원제도를 제외하면 인력관련 지원 제도(교육, 전문 인력 공급, 인력 매칭)를 희망하는 기업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MI 관계자는 “법정부 차원의 해양수산업분야 고용정책으로는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한 고용지원정책,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증대로 이어지기 위한 생산성 증대 방안 마련, 해양수산업 세부 산업별 맞춤형 지원제도 마련, 신규채용 기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부처 차원의 향후 추진과제로는 해양수산업 고용정책방향 수립, 해양수산업 고용실태조사 추진, 범부처 고용통계 공유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개정, 5일 시행

해수부, 분석방법·절차 등 표준화

해양수산업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잔류성 오염물질 등 15개 해양오염 항목에 대한 표준 분석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은 해양오염

항목별로 분석방법과 절차를 표준화해 분석방법의 차이로 인한 결과 오차를 줄이고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지침이다.

현재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은 해수부 질 44개 항목, 해저퇴적물 33개 항목, 해양생물 18개 항목, 해양폐기물 22개 항목 등 총 117개 항목에 대한 표준 분석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서는 그간 분석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던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퇴적물 중 리튬(Li)에 대한 분석법이 신설됐다.

특히, 국내 최초로 도입된 ‘해양생태독성 평가 분석법’은 해산규조류, 미역, 다시마, 참굴, 성게, 해산로티퍼 등 6가지 해양생물을 활용해 오염물질이 해양생물에 미치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분석방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 유죄판결 아닌 ‘적발’만으로 음주운전, ‘3진 아웃제’ 적용

대법원, 3진아웃제 논란 일단락

법원 유죄 판결과 관계 없이 음주운전 적발만으로 ‘3진 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3진 아웃제 적용 대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법 해석이 정리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35)씨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 형사합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의 취지는 반복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교통질서 확립이므로,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이 같은 해석에 따라, 그에 대한 혐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회 이상 위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는 설명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대법원.

/이범중 기자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음주운전 2회 전력을 단순 적발 횟수로 볼 것인지 법원의 유죄판결로 인정할 지 명확치 않아 하급심 판결이 엇갈려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3진아웃제 논란은 일단락됐다.

강씨는 지난해 2월 27일 혈중알콜농도 0.177%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씨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2월 2일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강씨에게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했다.

/이범중 기자 joker@

## 482개 국가기술자격검정 규정 강화

산업인력공단, 5개 등급 482개 종목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에 관한 규정이 강화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술사 등 5개 등급 482개 종목을 2019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및 시험운영 변경사항을 2일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수험자가 신분증을 미지참하거나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핸드폰, 전

자시계 등 시험에 불필요한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했을 경우, 당해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퇴실조치 및 시험은 무효처리된다.

공학용계산기 사용 규정도 변경된다. 기능사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된 공학용계산기 사용만 가능하며 기술사를 비롯한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등급은 별도 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 사립유치원 사태 오늘 분수령... '유치원 3법' 해법 나올까

## '유치원 3법' 오늘 국회 법안심사

한유총 "3법 통과시 즉각 폐원할 것" 정부 "협박으로 간주... 묵과 안해" 여야 '회계 이원화' 줄다리기 '팽팽' 폐원·모집중단 늘어... 불안감 고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사태'가 국내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정부의 '강대강 대처'로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낸 이른바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분리 회계'를 핵심으로 한 법안이 병합 심사되면서 절충안이 나오지도 주목된다. 3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관심을 받는 이유다.

### ◆회계투명성 vs 일반 회계 이원화

박용진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환수하고 횡령죄로 처벌하도록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게 핵심이다. 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사용으로 투명 회계에 방점이 실렸다. 한유총은 이 개정안이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은 한유총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에듀파인 의무

도입을 담고 있지만, 국가 보조금과 누리과정 지원금 등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지원금회계로, 학부모가 내는 원비는 일반회계로 이원화해 운영하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에 국공립유치원 회계는 있지만, 사립유치원회계가 없어 사립유치원회계가 불투명하게 운영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지원금회계의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의무화해 학부모 감시를 받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의 회계 분리 개정안에 대해서는 회계 투명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사립유치원이 학부모가 낸 원비를 씌웠던 것으로 쓸 수 있게 한

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자유한국당 개정안)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 등 큰 방향은 일치하는 것 같다"면서도 "유치원 회계를 학부모 부담금 회계와 나누자는 게 학부모 원비를 막 쓰도록 하자는 것이라면 국민상식에서 벗어나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심사 과정에서 조목조목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 ◆폐원·모집중지 검토 89곳으로 늘어

한유총은 더불어민주당 당론 유치원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단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폐원 유치원이 더 확대될지 우려되고 있다. 정치권이 유치원법 개정안을 놓고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면서 '유아 교육권'이 불모로 잡

힌 형국이다. 당장 내년에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가 공개된 올해 10월 이후 폐원이나 모집중지를 검토하거나 신청한 유치원은 전국 89개원(11월 26일 기준)에 달한다. 폐원한 사립유치원은 2016년 56개원, 2017년 69개원으로 사립유치원 폐원은 올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비리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기 전인 올해 1월~8월 자연 폐원한 사립유치원은 127개원이나 됐다.

지역별 사립유치원이 2000여 곳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1곳이 폐원을 신청했고 1곳은 모집중지를 검토하는 등 14곳이 모집중지나 폐원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지역은 27개 유치원이 폐원에 대해 학부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충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폐원에 따른 수용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유총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집단 폐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뜻을 밝힌다"면서 "한유총의 집단 폐원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협박행위와 같으며,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유총 집회에서 학부모 강제등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보류하는 약 120여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를 벌이고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비해 이미 밝힌 내년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단설유치원 신설도 추진한다. 서울과 경기 등 유치원 수요가 밀집한 지역은 시설 입대를 통해 긴급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조기 확보하고, 서울시를 비롯해 서울 관내 25개 기초자치단체가 부지와 건물 임대 등을 통해 유치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과 아울러 유치원 통학버스 단계적 확대와 방학 중 돌봄과 급식 개선 방안을 포함한 유치원 서비스 개선 방안을 오는 6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한유총은 1일 입장문을 내고 폐원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생존을 고민하는 사립유치원들이 스스로 폐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줄 것을 토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정책에 순응해 잔류할 수 있는 유치원과 세금을 받지 않는 또 다른 업종을 통해 유아교육의 실질을 영위하려는 유치원, 더 이상 유아교육에 매진할 수 없는 유치원을 나눠 잔류·변화·퇴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2018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결과보고회 상명대, '여성가족부 장관상' 등 수상

상명대학교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한 '2018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결과보고회'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 등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에는 국내 14개 대학의 한국 학생 600명, 외국인 유학생 693명 중 1293명이 참가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상명대 이유근·류티란 학생은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박해진·황영우 학생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각 대학들은 자체 기획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교류 활동을 수행했으며 상명대학교는 한국 학생 43명과 중국 학생 23명, 베트남 학생 18명 등 총 84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한·중·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18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결과보고회'에서 상명대 학생들이 여성가족부 장관상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상명대

베 미래의 주역,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논하다'를 주제로 역사유적지 탐방을 통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3국의 역사적인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했다.

/한용수 기자

## KAIST 신입감사에 김선화 순천향대 교수

KAIST는 김선화 순천향대 교수(62·사진)를 상임감사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임기는 2018년 12월 3일부터 2021년 12월 2일까지 3년이다.

김 신입감사는 공개모집 절차와 감사 후보선임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 이사회 의 최종 선임과정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됐다.

김 감사는 충남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금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포항제철기술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미조지아공대, KIST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 자문위원, 순천향대학교 공과대학장, 대통령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 등을 역임하며 연구관리 및 연구소경영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KAIST 관계자는 "KAIST의 교육 및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예방적 감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 성신여대 '특화형 도그워커', 일자리 공모전 우승

서울시 '2018 청년 일자리 해커톤'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

성신여대는 재학생들이 서울시의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인 '2018 청년 일자리 해커톤'에서 우승을 차지해 서울특별시 장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가 청년들이 직접 낸 아이디어를 서울시 일자리 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최했다.

성신여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함께견

개'(영어영문학과 16학년 이예림 외 4명) 팀은 '의료 특화형 도그워커'를 제안해 가장 우수한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검토를 거쳐 향후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된다.

성신여대는 이밖에도 5팀이 각각 숙명여대 총장상, 상명대 총장상, 인기상,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이번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성신여대 학생팀은 이번 공모전에 접수된 42팀 중 실현 가능성이 높은 15팀 중 6팀이 본선에 진출한 데 이어 전원 수상으로 눈길을 끌었다. /한용수 기자



29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8 청년 일자리 해커톤'에서 우승한 성신여대 재학생 '함께견개'팀과 김도형 부총장(맨 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신여자대학교

## 세종대 건축학과 학생들이 '의왕시 도시설계 공모전'서 수상

세종대는 건축학과 학생들이 최근 개최된 '제12회 도시의 날 의왕시 도시설계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노후 공업지역인 의왕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수상자는 세종대 건축학과 정혜현·임혜원·임차경·권은서·김희곤 씨 등 5명으로, 학생들은 '태일의 도시 내일의 도시 부곡'이라는 주제로 부곡동의 철도이 미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을 제안했다.

학생들이 제안한 계획은 '도시 내의 자생적 재생을 통해 낙후된 환경을 정비하고 생산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리모델링과 신축'이다. 또한 의왕시에 중심축을 설정해 더욱 생기가 넘치는 부곡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획의 주안점이었다.



(왼쪽부터) 세종대 건축학과 정혜현, 임혜원 학생, 유아영 교수, 임차경, 김희곤 학생 /세종대

정혜현 학생은 "의왕시라는 도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어 철도 특구로서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의 계획안이 의왕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도해 주신 유아영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 강남대 조예은 씨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강남대학교는 중등 특수교육과 4학년 조예은(사진) 씨가 '2018년도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에서 장애학생 교육과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조 씨는 강남대학교 웰-테크(Wel-Tech) 기반 융합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에서 시각장애인 이도성·접근성 증진 보조공학기 연구를 해왔으며, 청소년 진로 찾기 봉사활동 '엔젤맨' 주최 및 진행과 한국 시각장애인복지관 주최 시각장애인 학습 봉사자로 참여했다.

조 씨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www.pdna.co.kr

# 사랑한다면 동안을 선물하세요



-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함유
- 아데노신 함유



## 촉촉한 동안피부, 비밀은 DNA 피디엔에이 크림 & 세럼

- 바다 송어의 DNA에너지를 담은 피디엔에이 크림&세럼  
찢어질 듯 건조한 피부는 잔주름의 원인. 바다 송어의 물찬 보습, 원초적 탄력으로 메마르고 지친 피부를 지켜주세요. 바다 송어에서 추출한 소듐 DNA, 주름개선 기능성 성분인 아데노신 등 풍부한 피부보호 성분이 수분과 안티에이징을 동시에 관리해줍니다.
- 겨울에도 눈부신 봄 피부,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하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 본 적 없었나요?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던 시간, 아름답게 빛나던 그때의 얼굴을 다시 한 번 선물해보세요. 아름다운 변화, P+DNA 크림과 세럼이 함께 합니다.

\* 7가지 피부보호 성분 함유(크림) : sodium DNA 1000ppm, 아데노신, 병풀추출물, 여성초추출물, 치아씨추출물, 백년초열매추출물, 올리브오일 외



주름개선기능성



유수분밸런스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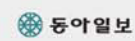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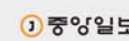


피부탄력개선



### 주요 언론에 소개된 피디엔에이 크림&세럼

▶ KOTRA BUYERS GUIDE Pioneer 소개 (2018.8)  
"Skin regenerating cosmetics"



**P+DNA** MFDS 식약처 기능성 보고 완료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구입문의  
고객상담센터 **070-4870-0708**





**BNK경남은행, 외국인 근로자위해 금융교육**  
BNK경남은행은 지역 외국인 근로자가 원활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김해 외국인 인력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 금융교육에는 김해 거주 외국인 근로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BNK경남은행



**롯데호텔, 감정노동자 보호법 개정 홍보 웹드라마 제작**  
롯데호텔이 '감정노동자 보호법' 개정과 관련한 웹드라마를 제작해 소비자의 감질에 대한 제도 및 인식 전환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2일 롯데호텔은 지난 달 30일 L7명동에서 웹드라마 '아찔한 손님'의 시사회를 열고 특별판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 드라마는 롯데호텔과 글로벌콘텐츠 전문기업 화이브라더스코리아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롯데호텔 김정환 대표이사(왼쪽부터 차례대로),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고동우과장, 이근규 사무관, 화이브라더스코리아 지승범 대표. /롯데호텔



**CJ제일제당 비비고, '비비고프렌즈 한상대첩' 개최**  
CJ제일제당 비비고는 지난 달 30일 서울 중구 CJ제일제당센터 CJ터키친에서 글로벌 서포터즈 '비비고프렌즈'와 함께 '비비고프렌즈 한상대첩'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요리 경연대회는 지난 10월 개최된 PGA 투어 정규대회 'The CJ CUP'에서 선보인 콘(Cone) 모양의 비빔밥 레시피 '비비콘'과 같이 글로벌 입맛을 사로잡는 간편 한식 레시피를 찾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CJ제일제당



**BGF '둘리의 고향' 쌍문동서 벽화그리기 봉사**  
BGF가 지역사회 환경 개선에 나섰다. BGF는 지난 1일 국민 캐릭터 둘리의 고향 쌍문동에 위치한 쌍수교 일대에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BGF 임직원과 가족 등 30여 명은 '벽화로 전하는 지역 이야기'를 주제로 쌍수교 일대의 어둡고 밋밋했던 담벼락을 밝고 활기찬 벽화로 채워나갔다. /BGF



**SPC 배스킨라빈스, 크리스마스 시즌 광고 공개**  
SPC그룹이 운영하는 배스킨라빈스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크리스마스엔 아이스크림 케이크로 놀자!'라는 컨셉의 TV 광고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SPC

# 필자의 일기



**김민 소장의  
탕탕평평**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 칼럼니스트, 시사평론가, 강연자. 필자가 하는 일들이다. 이 중 유난히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강연이다. 기업체, 관공서, 시민단체, 교육기관 등 요즘 들어 부쩍 강연을 많이 다니다. 그러다보니 말 그대로 전국방방곡곡 참 많은 곳을 여행하는 호사를 누리고 있다. 순수한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많은 곳에서 나를 찾고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 제공할 것이 있다는 자체가 스스로에게 기쁨이자 감사함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유유상종 하며 살아가지만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적잖은 호감과 매력을 느끼게 된다. 같은 세상과 시대를 살고 있지만 자신과는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마인드와 언어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새롭게 보일 것이며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필자 역시 다양한 분들과 늘 새로운 장소에서 만나고 소통을 하면서 강연을 하는 당사자지만 그분들과 대동소이한 감정으로 소통을 하게 된다. 구태여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눈빛에서 늘 새로움과 신선함을 느낀다. 그리고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에 대한 소중함과 결코 호락호락 하지 않는 인생에서 동질감 및 연민이 느껴지기도 한다. 청중들은 필자에게 고차원적인 지식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누구나 잠재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각자가 스스로 정리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입을 통해 듣고 위안을 얻기 바라는 것이다. 그것이 정녕 소통의 소중함이고 가치라고 생각한다. 웃음만 주는 강연은 메시지가 없고, 진지하기만 한 강연은 따분할 것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강연은 리스닝이 아닌 히어링으로 끝날 것이다. 적당한 웃음으로 긴장감을 해소하고, 진지한 내용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쉬운 언어로 얘기하며, 필자의 목소리가 그냥 허공에 흩날리는 주변의 소리가 아니라 청중에게 집중력을 제공하는 부드러운 울림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이런 점들은 필자가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누군가를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솔직함과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논리가 있어야 하며, 누군가에게 친근함을 주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격을 낮추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강연을 거듭할수록 매일매일 반성하며 실감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청중들께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로 하여금 내 자신이 변화하고 발전하며 삶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는 것이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냥 스쳐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에 많은 의미부여를 하게 된다. 인생에서 우리가 정녕 배워야 할 것은 교과서와 시험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즉 인간관계에서 느껴지고 얻어지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자 우리가 알아야 할 가치가 아닌가 싶다. 하루하루 강연을 다니면서 주어진 두 시간의 소통을 위해 왕복 수백킬로미터를 다니는 와중에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심신의 피로보다는 인생에 대한 진지함이 더 크기 때문에 강연이라는 매개를 통해 소통을 하면서도 단 일본일 초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정말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런 노력이 그리고 필자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고, 격려와 희망이 된다면 직업이라는 수단을 떠나 한없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앞으로도 누군가의 상실감이 희망으로 거듭나고,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의 마인드로 변화하고, 당연으로 받아들이던 인생에 소중함과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보면 세상에 모든 인연들은 모두가 다 필자에게는 스승이고, 친구이며, 좋은 동반자이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일을 앞으로도 더 큰 사명감으로 받아들이고 오랫동안 정진하기를 바란다.

/테리리플러 정치연구소장

## 하나금융 브랜드 모델, 김선미 휠체어펜싱 선수

하나금융그룹은 그룹과 KEB하나은행의 새로운 브랜드 모델로 휠체어펜싱 선수인 김선미 선수를 발탁했다고 2일 밝혔다.

김선미 선수는 중 3학년때 오토바이 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고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장애인 펜싱선수의 권유로 펜싱을 시작해 2010년 광저우 장애인아시아

게임 에페 개인전은 메달 수상, 2012년 런던 패럴림픽 대회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한 휠체어펜싱 종목의 간판 선수이다.

특히 올해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게임에서는 남북 공동 입장 기수로도 활약했으며, 여자 에페 개인전 동메달을 수상하면서 다시 한번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바 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휠체어펜싱 김선미 선수

### 인사

- ◆**환경부** ◇ 국장급 승진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이창홍 △ 금강유역환경청장 조희승
- ◆**특허청** 〈전보〉 ▷과장급 △정보고객지원국 등록과장 김창수 △특허심사기획국 계속분석심사팀장 김주대 △특허심사기획국 의료기술심사팀장 양인수
- ◆**한국연구재단** ▷승진 △국제협력본부장 박두영 △전략기획본부장 황준영 △경영지원본부장 김한기 △인문사회연구총괄실장 이덕우 △대학교육실장 백민정 △정책총괄실장 박훈준 △지식정보실장 이경우 △연구윤리실장 김해도 ▷전보 △홍보실장 박길수 △기초연구기획실장 류영대 △기초연구지원실장 이재방 △국책사업기획실장 안화용 △원천사업실장 장경수 △거대사업실장 한상덕 △학술총괄실장 권기환 △인재양성실장 정진호 △산학협력실장 최태진 △국제협력진흥실장 최연수 △경영실장 박숙미 △재정기금실장 김형구 △기획조정실장 김경일 △감사실장 김기형
- ◆**한국기계연구원** ▷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이사일 ▷실장 △환경시스템연구본부 환경기계연구실장 한방우 △경영지원본부 인력개발실장 권동인 △경영지원본부 총무구매실장 송재윤 △경영지원본부 안전시설실장 김달식
- ◆**한화생명** ◇본사 △인사지원실장 김현철 △미래혁신총괄 겸 해외총괄 김동원 △윤리경영

- 실장 김중원 △고객지원실장 이경근 △투자사업본부장 노철규 △경영지원실장 박진국 △전략개발본부장 고병구 △해외투자네트워크본부장 이병서 △해외사업관리본부장 오지영 △보험코어S구축TF팀장 이준노 △경영관리팀장 남광현 △상품개발팀장 성원호 △법인사업부장 김상길 △글로벌네트워크팀장 김종민 △감사실장 이관영 △신사업1팀장 박종준 △해외신사업본부장 임동준 △고객유입CPC팀장 장덕보 △채널혁신단장 김중곤 △개인지원팀장 이진수 △신채널사업부장 여경구 △영업교육팀장 이명연 △GA사업부장 유영식 △방카슈랑스사업부장 김정우 △언더라이팅팀장 이원근 △보험심사팀장 최승영 △고객지원팀장 서용성 △연수팀장 변준근 △전략지원팀장 조현호 △IT운영팀장 손영목 △해외법인관리팀장 최현희 △신사업2팀장 박철진 △해외투자1팀장 문호일 △법무팀장 김준호 △고객관리CPC팀장 임병욱 △고객활성화CPC팀장 구창희 △디지털지원팀장 박준현 △온라인사업부장 이상원 △해외인재관리팀장 안현아 △해외투자2팀장 권남열 ◇지역본부장 △강북 문화수 △강남 소방 △충청권봉선 △호남 이창주 ◇지역단장 △일산 안상범 △서울 이은석 △의정부 서무원 △구리 이경섭 △종로 장세정 △서부 장우종 △명동 오계형 △강서 최종철 △강릉 이승열 △TRI 서울 정준호 △GFP수도 김남수 △용인 고광조 △평택 박효순 △남수원 김태완 △남인천 양해

- 선 △안양 이미숙 △부평 김병곤 △부천 조영석 △청주 이석범 △충북 함홍식 △단산 이영권 △전북 권철병 △전남 정두석 △광주 윤상돈 △포항 권병철 △수성 강경호 △경남 이승제 △강남 박신 △GFP중부 이준우 △TRI영남 김남선 △남울산 김영일 ◇GA사업단장 △강북 이종인 △서울 김진관 △경인 홍재욱 ◇방카사업단장 △영남 강중수
- ◆**커리어케어** △글로벌사업본부 C&A부문장 현필호 △글로벌사업본부 D&T팀장 유정록
-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오봉연 △편집국장(상무) 박희준

### 부음

- ▲ 전영휘씨 별세, 이태종(현대글로벌비스 홍보실장)·영종(자영업)·호종(베테리너리행 대표)씨 모친상, 장대익(사업)·이희춘(사카팬코리아 대표)씨 장모상 = 2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실(3일은 22호실), 발인 4일 오전 6시 20분 ☎ 02-3010-2291(3일은 ☎02-3010-2262)
- ▲ 김현용(전주교육대 명예교수)씨 별세, 김광욱(GLS이사)·김성욱(개인사업)씨 부친상, 김호석(한국화가)·박승호(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씨 장인상 = 2일, 전주 고려병원 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8시 30분 ☎ 063-242-9944



# 유통업계 '완구 기획전' 크리스마스 선물 고민 끝!

### 사전예약하면 인기 장난감도 구매 완구와 함께 장식용품·소품 할인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는 선물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기 장난감의 경우 물량이 많지 않아 대형마트에 줄을 서서 사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파워레인저 '티라노킹'의 경우 정사가 7만5000원인 상품이 시중에서 구하기 힘들게 되자, 온라인에서는 이보다 3배 가량 비싼 20만원 가량에 팔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고, 물량이 일부 있는 대형마트에는 새벽부터 긴 줄이 이어지기도 했다.

올 크리스마스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대형마트들이 일찍이 '크리스마스 완구 기획전'을 열고 고객맞이에 나선다.

국내 1위 장난감 카테고리 킬러 매장인 롯데마트 토이저러스가 인기 장난감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롯데마트 토이저러스는 지난 29일부터 오는 5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몰인 토이저러스몰을 통해 게임, 피규어, 변신로봇, 블록 등 60여 종의 장난감을 최대 반값 수준에 사전예약판매를 진행한다.

가장 주목받는 상품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기인 '닌텐도 스위치'로, 그레이와 네온블루



크리스마스 용품 기획전.

/이마트

네온레드2종을 정사가 35만원에서 40% 가량 가격적으로 할인된 19만9000원에 각 30대씩 한정으로 판매한다.

남아들에게 인기있는 '베이블레이드 부스터 울인원 세트'를 정사가보다 25% 가량 할인된 가격에, 최근 출시된 '다이노코어 에볼루션2 얼티밋 킹다이너'를 정사가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토이저러스 인기 장난감 사전예약 판매는 3만원 이상 무료배송이며, 사전예약 기간 다음 날인 12월 6일부터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순차적으로 배송이 진행된다.

이마트는 '크리스마스 용품전'을 비롯해 국내에서는 생소한 '어드벤처 캘린더' 형태의 완구를 선보이며 크리스마스 준비에 나선다.

내달 12일까지 '크리스마스 용품전'을 열고 행사 카드(이마트e/KB/신한/

현대/NH/우리/기업)로 구매 시 트리와 크리스마스 장식품 100여 품목을 추가로 20%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상품으로는 크리스마스 베이직 트리와 크리스마스 볼 장식이 있다.

올해는 좁은 공간에도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가랜드를 비롯해 크리스마스 테이블탑, 스노우 볼 등 트리 대신 간편하게 집안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밀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류도 인기를 끈다.

상대적으로 부피가 커 보관이 어렵고 꾸미기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드는 전통적인 트리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집안을 꾸밀 수 있는 조명이나 가랜드 등 인테리어 소품을 대폭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대형마트 가운데 처음으로 '어드벤처 캘린더 완구' 기획전도 연다. 어드벤처 캘린더는 19세기 중반 독일



롯데마트 서울역점 토이박스.

/롯데마트

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 초콜릿이나 사랑을 담아 주던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종이에 날짜만 적힌 일반적인 달력과 달리 날짜별로 칸칸이 구분된 종이상자 형태의 달력이다.

칸칸이 서로 다른 선물이 숨겨져 있어 크리스마스까지 매일매일 새로운 선물을 뜯어 볼 수 있는 일종의 크리스마스 표 럭키박스인 셈이다.

총 24가지의 서로 다른 작은 사이즈의 피규어나 미니어처 장난감으로 구성해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매일 하나씩 뜯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어드벤처 캘린더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선물한다.

헬로키티와 메카드 등 인기 장난감을 랜덤하게 담은 초이락 크리스마스 어드벤처 캘린더와 레고의 인기시리즈를 담은 어드벤처 캘린더 3종(시티/스타워즈/프렌즈)을 비롯해 콩지라빛과 리틀미미

를 어드벤처 캘린더로 만나볼 수 있다.

LF 계열사 트라이씨클의 유아동 전문몰 보리보리도 '미리 크리스마스' 기획전을 진행한다. 선물용 교육완구를 비롯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과 인형, 각종 파티소품과 장식용품을 최대 80% 세일한다.

대표상품으로는 폴리스 6단 합체 로봇이 1만원대, 슈퍼마리오 미로 대탐험 3D 입체 보드게임이 2만원대로 판매된다. 역할놀이용 마이셰프 프리미엄 주방 세트와 축축이 모래놀이 제품은 각각 3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다.

글로벌 완구 브랜드 피셔프라이스는 러닝홈, 아기체육관 등 베스트셀러 아이템을 구성했다. 뉴러닝홈은 9만원대, 피아노 아기체육관은 3만원대로 만날 수 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보드 게임은 4천원대부터 구입이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겨울철 한끼 대응으로 '즉석스프' 시선집중

### 물만 부으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추워지는 겨울, 스프 고유 매력 조명

식품업계가 겨울철 한끼 대응으로 '즉석스프'를 주목하고 있다.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HMR)의 인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간편식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간편대용식(CMR)' 제품도 대거 출시되고 있다. 이 같이 다양한 종류의 대용식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특히 추운 겨울을 맞아 간편식의 대표격인 '즉석스프'를 선보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과거 국, 찌개 등 전통 음식이 꽉 잡고 있는 한국에서 서구음식으로 대변되는 스프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 소비자 입맛과 취향이 다양해지면서 스프 고유의 매력이 다시 조명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집에서 물만 부으면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동시에 영양적인 면에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형태로 출시가 되면서 한끼 대용식으로서 스프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최근 식품업계에서도 맛과 영양이 풍부한 다양한 라인업의 스프를 본격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DOLE(돌)의 '가든스프'는 뜨거운 물만 부으면 간편하고 빠르게 즐길 수 있는 식품으로 채소, 치즈 등 신선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스프의 진한 풍미와 함께 풍부한 식감까지 살렸다. 로스티드갈릭&파



왼쪽부터 시계방향대로 돌의 '가든스프', 농심의 '보노스프',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아침에스프', 샘표의 '폰타나'. /돌·농심·서울우유협동조합·샘표식품

망베르치즈, 브로콜리&포테이토, 파마산치즈&어니언, 머쉬룸&콘, 크림미림킨 총 5종이다.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다양한 원재료의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고, 속이 든든한 포만감까지 챙길 수 있어 간편한 한끼 식사로 제격이다.

농심의 '보노스프'는 끓는 물을 붓고 젓기만 하면 15초 만에 완성되어 바쁜 아침 시간 식사대용이나 간식으로 간편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보노스프는 전용 농장에서 파종·재배하는 원료를 사용하며 당일 수확한 농산물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풍미도 뛰어나다. 어니언크림스프, 시금치크림스프 등 종류도 다양해 기호에 맞게 즐길 수 있다. 농심은 보노스프의 국내 생산이 시작

되는 2019년 하반기부터 즉석스프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해, 2020년까지 보노스프 매출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샘표식품의 '폰타나'가 선보인 수프는 밀가루를 버터에 볶는 유럽 정통의 '루(Roux) 방식'을 바탕으로 본 고장의 레시피와 특색 있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깊고 진한 정통 수프의 맛이 특징이다. 1인분씩 포장된 스틱 타입과 컵 타입의 두 가지 형태로 선보이고 있으며, 뜨거운 물만 부으면, 간편하게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즐길 수 있다. 부드럽고 달콤한 '뉴질랜드 콘치즈', 버섯의 향긋함이 가득한 '피에몬테 앙송이 크림' 등 총 4가지 맛으로 출시되어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최근 출시한 건강한 간편식 '아침에스프'는 레드, 엘로우, 그린 총 세가지 타입으로 토마토, 구운 스위트 옥수수, 브로콜리 맛을 특색있게 컬러로 표현해 낸 부드러운 스프다. 3가지 과일과 6가지 채소, 5가지 곡물까지 함유하고 있어 건강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스프 맛의 핵심은 원유의 품질과 함유량이다. 아침에스프는 서울우유의 전용목장에서 철저한 관리 하에 생산된 국내산 전지분유를 함유하여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

한편 국내 스프시장은 약 580억원 규모로, 냄비에 조리해 먹는 타입의 '끓여먹는 스프'와 물을 붓고 저어 먹는 타입의 '즉석스프'로 양분된다. 이 가운데 즉석스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31%, 2016년 39%, 2017년 4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SK스토아, T커머스 퀀텀 점프 이끈다 창립 1주년 맞아... 취급액 220% 성장

### 2021년 2조원 목표액도 무난할 듯

SK브로드밴드에서 분사한 디지털 홈쇼핑(T커머스)업체 SK스토아가 창립 1주년을 맞았다.

SK스토아는 SK브로드밴드 100% 자회사로 지난해 12월 1일 별도 법인으로 분사해 첫 방송을 시작했다.

홈쇼핑 분야 후발 주자로 분사 초기, 업계의 우려도 있었지만 '쇼핑에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는 SK스토아(SK stoa)의 사명만큼이나 올 한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

특히 올해 취급액이 약 402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작년 대비 약 220%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T커머스 업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로 2021년 취급금 목표액인 2조 원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립 당시, 80여 명이었던 임직원 수가 현재 2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인재 영입에 힘을 쏟아 시장 내 고용 창출 효과를 유발하는 등 T커머스 시장 활성화에도 앞장섰다.

SK스토아 방송을 시청하는 가구 수도 대폭 늘었다. 최초 출범 시 13개 플랫폼에서 11월 말 기준, 15개 플랫폼 18개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SK스토아가 전국구 홈쇼핑 사업자로 거듭났음은 물론,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대부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SK스토아가 T커머스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던 데에는 SK 그룹사로서 다양한 ICT 기술과 고객들의 정보 가치를 활용해 시너지를 일으킨 것이 주요했다. SKT, SK브로드밴드, SK플래닛 등 관계사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주)한국농림 등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한편 SK스토아는 사회적 기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4월, 20년 경력의 베테랑 쇼호스트인 유난희 씨를 섭외해 사회적 기업 제품을 집중 소개하는 '유난희의 굿즈' 프로그램을 정규 편성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사회적 기업 상품의 홈쇼핑 입점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인 'SK스토아 홈쇼핑 아카데미'도 매년 2차례 진행 중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유통 판로도 지원 중이다. 사회적 기업 상품을 방송할 때에는 판매 수수료를 낮추고 방송 제작비도 지원한다. 마케팅 프로모션, 대외 홍보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에서도 해당 상품들을 꾸준히 노출해 지속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원선 기자



공기청정기 30초에 한대  
 얼음정수기 56초에 한대  
 정수기 필터 1초에 하나

# “누구보다 깐깐하고 빠르고 완벽하게”

**Q 르포**

**코웨이 충남 유구공장을 가다**



충남 공주 유구농공단지에 있는 코웨이 공장 전경. 공장 옆에는 대규모 물류센터도 있다.

**축구장 6배 넓이 유구공장 가동  
 공기청정기 등 年 151만대 생산  
 근무자 절반정도 지역주민 채용  
 정전기·방진 등 테스트도 진행**

통상 ‘포드시스템’으로도 불리는 컨베이어 생산방식이 생산성과 작업효율성에서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런데 유구공장에선 공기청정기를 한 명의 작업자가 조립부터 검사, 제품 완성까지 도맡아하는 ‘셀라인(CELL-LINE)’ 생산방식을 일부에 적용하고 있다.

유구공장 이승영 차장은 “셀라인 방식에선 2평 정도의 공간에서 다기능 기

술을 보유한 1명의 작업자가 협력업체에서 1차조립을 끝낸 제품을 2차 조립부터 각종 테스트, 완제품 조립까지 전공정을 담당하게 된다”면서 “셀라인 생산은 모델 전환이 쉬워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경쟁사와 비교해 약 2배의 생산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4개의 셀에선 하루 최대 1000대의 공기청정기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물론 라인 한 쪽엔 10kg 이상의 무거운 대형제품 생산을 위한 셀라인도 별도로 갖춰놓고 있다.

또다른 라인에선 카운터탑 형태의 얼음정수기 조립이 한창이다.

얼음정수기나 정수기의 경우 테스트는 100% 자동화가 돼 있지만 조립, 용접, 가스주입, 테스트 준비 등은 직접 사람의 손을 거쳐야한다. 이때문에 생산라인별로 적지 않은 12~17명 가량이 배치돼 각각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코웨이는 가전제품 제조공정 최초로 NFC기반의 무인 오토 체크 시스템을 도입해 정수기와 관련한 52개 항목을 테스트해 불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또 정수기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누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선 직접 물을 사용해 시험을 해야하지만 유구공장에선 2011년부터 아예 물을 없앴다.

정수기를 테스트할 때 물을 사용하다 보니 유통과정에서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겨울철엔 결빙이 돼 동파가 되는 등 역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웨이는 물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검토한 결과 ‘질소+진공’을 정수기 테스트 과정에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물 없는 정수기 테스트’를 시작하면서 검출력은 2배 가량 높아졌고, 연간 1320t에 달하는 물도 절약할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뒀다.

정수기의 생명은 뭐니뭐니해도 필터다. 중공사막식보다 정수능력이 뛰어난 역삼투압방식을 생산하는 코웨이의 정수기에는 두 개의 카본 필터와 RO멤브레인 필터, 그리고 항균 필터가 들어간다.

유구공장에선 이 가운데 첫 번째와 세 번째에 들어가는 프리 카본 필터(네오센스 카본)와 포스트 카본 필터(이노센스 카본)를 생산한다.

카본 필터는 수도물에 들어있는 소독약을 없애고 물 맛을 좋게하는 기능을 한다.

유구공장엔 생산시설 외에도 신뢰성 시험실과 국제안전인증센터도 갖춰놓고 다양한 시험과 해외 수출을 위한 인증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인증센터에만 약 250개의 각종 장치들이 있어 낙뢰시험, 전압변동시험, 간섭시험, 정전기시험, 대기전력시험, 방진·방수 시험 등 각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 1위 기업의 생산공장은 기자가 들고간 카메라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제품도, 관리도 깐깐한 모습이었다.

/충남 공주=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공기청정기 30초에 한대, 얼음정수기 56초에 한대, 정수기 필터 1초에 하나씩...’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생활환경가전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코웨이 충남 공주 유구공장의 생산 능력은 가히 놀라웠다.

공기청정기는 봄, 얼음정수기는 초여름 등 제품들마다 대목이 있지만 기자가 찾아간 11월 말의 공장 풍경은 마치 계절을 앞둔 것처럼 사람이나 기계나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축구장 약 6배 넓이인 코웨이 유구공장은 1994년 9월 준공해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1989년 당시 웅진그룹이 웅진코웨이를 설립하고 방문판매와 렌탈방식을 접목, 유통에 혁신을 꾀하고 회사가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유구공장은 25년 가까운 세월동안 생산기지로써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오고 있다.

코웨이 유구공장이 있는 유구농공단지를 가기위해 지나친 유구읍내에는 그룹사 태로 웅진그룹의 품을 떠났다 최근 웅진이 다시 사들이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환영한다는 플래카드가 곳곳 붙어있었다.

‘웅진’은 백제시대 공주의 옛 이름이다. 공주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고향이기도하다.

코웨이는 현재 국내에선 유구공장 외에 인천공장, 포천공장도 가동하고 있다. 물론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등을 연간 151만대 생산할 수 있는 유구공장의 규모가 가장 크다. 이곳은 정수기 필터에 들어가는 프리 카본 필터나 포스트 카본 필터 등 관련 부품도 연간 3735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2011년에는 공장 바로 옆에 대형 물류센터인 ‘유구 Hub-DC’도 준공해 전국 배송이 가능한 물류네트워크도 구축했다.

생산과 물류가 집약된 공주 유구공장이 코웨이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공장에는 현재 생산직 210명과 연구원 50명을 포함해 320명이 근무하고 있다. 예전엔 70~80%가 지역주민이었지만 지금은 절반 정도가 현지인으로 과거보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

유구공장 공장관리팀 김관순 부장의 설명이다.



숙련된 기술자가 검사부터 완제품 조립까지 하는 코웨이 유구공장의 셀라인과 완성된 공기청정기가 보인다.

/코웨이

## 35세 이상 출산여성, 골다공증 위험 ‘3배’

**폐경여성 1328명 출산 연령 분석  
 출산횟수 4회 이상 여성도 3배 높아**

35세 이상 나이에 마지막 출산을 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폐경 후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최대 3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산부인과 위지선·길기철 교수 연구팀은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등록된 폐경여성 4546명 중 연구대상자로 적합한 1328명을 추려 출산 시 연령과 골다공증

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폐경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대상자의 35.24%(468명)로, 3명 중 1명꼴이었다.

특히 출산 횟수가 많고 마지막 출산연령이 높을수록 골다공증 유병률이 높았다. 출산을 4회 이상 하거나 마지막 출산이 35세 이후인 여성은 골다공증 위험이 최대 3배 규모로 커졌다.

위 교수는 “출산 횟수가 4회 이상인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약 60%로 1~2회 출산한 여성(20%)에 비해 3배 높았다”며

“35세 이후에 마지막 출산을 했을 경우에도 20대에 마지막 출산을 한 여성에 비해 골다공증 위험이 3배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폐경기 골다공증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미리 적절한 칼슘을 섭취하는 등의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골다공증학회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골다공증으로 고관절이 골절된 50세 이상 환자 17.4%는 최초 골절 발생 후 1년 이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시몬스침대 불에 안타는 매트리스 프로모션 진행

시몬스는 ‘난연 매트리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 시몬스는 최근 국내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자체 생산돼 유통되는 일반 가정용 매트리스 전 제품을 난연 매트리스로 개발, 출시한 바 있다. 판매가의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난연 매트리스 프로모션은 이달 말까지

전국 시몬스 직영 갤러리 및 백화점 매장에서 진행된다.

난연 매트리스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매트리스로 화재시 대비 시간을 확보해 대형 화재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국 시몬스 침대가 개발한 난연 매트리스는 일반 가정용 매트리스 전종을 국

제표준규격(ISO 12949)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국내 표준시험방법(KS F ISO 12949)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

한국 시몬스 침대의 난연 매트리스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탁월한 화재 안전성을 가진 신소재 ‘맥시멈 세이프티 패딩’을 사용했으며, 특허 출원도 끝냈다.

시몬스의 난연 매트리스는 현재 예약 판매 중으로 3일부터 구매고객에게 순차적으로 배송된다.

/김승호 기자



권혁은 아이에스동서 회장이 대구시에 2억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지난 30일 열린 전달식에서 (왼쪽부터)이희정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권혁은 회장, 권영진 대구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이에스동서

## 대구에 또 2억... 권혁은 회장의 ‘나눔실천’

(아이에스동서)

권혁은 아이에스동서 회장의 나눔 실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아이에스동서는 권 회장이 대구지역 취약 계층을 위한 집수리에 써달라며 지난달 30일 대구시에 2억원의 이웃사랑성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경북 의성이 고향인 권 회장은 대구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공부를 한 향토 기업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에 아파트 사업을 시작하면서 연말에 지역의 불우이웃을 위해 매년 성금을 기부한다는 것은 드문

사례로 이는 향토출신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권 회장의 기부는 지역에 진출하는 역외기업들의 모범사례로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권 회장이 대구시에 전달한 성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노후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공부방 설립 기금 후원,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실천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 삼성, 연말맞아 이웃사랑 성금 500억 기탁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기탁 아동센터·독거노인 찾아 봉사활동

삼성 계열사들이 연말을 맞아 이웃 돌보기에 나섰다. 삼성은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할 '2018 연말 이웃사랑 성금' 500억원 을 조성했다고 2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및 삼성SDI 등 전자계열사와,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들도 동참했다. 각 회사가 대외 기부금 승인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

성금은 청소년 교육 지원과 취약계층 의료 보건개선 개선, 장애인 복지 증진, 다문화가족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앞서 삼성은 1999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5700억원을 출연했다.

임직원들도 연말 이웃 사랑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전국 사업장에서는 임직원과 시민 2600여명이 함께 김장김치 222t(톤)을 담가 2



삼성전자는 여러 계열사들과 함께 연말 이웃 나눔 행사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만2778세대에 전달했다.

또 수원 삼성디지털시티 임직원들은 경기도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에게 줄 선물을 직접 만들고, 구미 삼성스마트시티 임직원들은 20일 '일일 산타'로 지역아동센터 49곳에서 1500여명 아이들에 성탄 선물을 전달키로 했다.

아울러 삼성디스플레이는 '사랑의 김장축제', 삼성SDI는 독거노인가구 100곳에 내의를 전달하는 등 행사를 진행한다.

앞으로도 삼성은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 LCC 신규면허 신중해야



### 기지 수첩

양성운  
(산업부)

국내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추가 소식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LCC는 2004년 한성항공(티웨이항공으로 변경) 설립과 함께 비롯됐으며 2005년 제주항공, 2007년 에어부산, 2008년 진에어, 2009년 이스타항공, 2016년 에어서울이 잇달아 출범하는 등 6개사 체제로 확대됐다. LCC 출범 이후 해외여행 문턱이 낮아지면서 꾸준히 수요가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신규면허 심사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3월까지 새 LCC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면허 신청서를 접수한 항공사는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에어필립 등이다. 이들은 각각 강원도 양양공항, 청주공항, 인천공항, 무안공항 등을 거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항공사 면허발급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신규 LCC 추가할 경우 생존 경쟁을 위한 업계간 '치킨게임'이 진행되면

서 성장세가 크게 꺾일 것이라는 우려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78년 항공시장 규제 완화법을 시행하면서 항공사가 대폭 증가했다. 초기 신규 고용창출과 시장 경쟁에 따른 소비자 권리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지만 항공업의 특성상 시장 포화로 인해 안전사고가 늘어나면서 결국 대부분 회사가 파산했다.

여기에 LCC 업계가 이미 시장 포화상태라는 점도 문제다.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스롯'이 제한적이며 국내선의 경우 제주 노선을 제외하고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은 LCC가 많은 편에 속한다. 인구 13억 이상의 중국에도 LCC는 8곳에 불과하다. 인구가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은 일본에도 6개의 LCC만 영업을 하고 있다.

무리하게 항공사업자가 늘어나게 될 경우 경쟁 증가로 인한 수익감소, 이로 인한 안전 투자 감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부 항공사가 파산할 경우 일자리 상실과 실업 등 사회적 비용 발생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신규 LCC 출범으로 향후 국내 항공 업계에 미칠 영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ysw@metroseoul.co.kr

# 집배원이 추천하는 겨울 여행지 100곳 소개

크리스마스, 연말·새해 일출, 방학 등을 맞아 겨울에 가볼만한 여행지 100곳을 담은 '집배원이 전해 드리는 겨울여행'이 책자로 나왔다. 이번에 나온 책자는 '집배원이 전해 드리는...' 시리즈로 여름, 가을에 이은 세 번째 여행이야기다.

여행지는 전국의 집배원들이 겨울철 여행지로 추천한 곳 중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일출명소, 온천, 겨울산, 썰매장, 야경명소 등 경치

가 빼어나고 휴가를 즐기기에 좋은 곳을 담았다. 서울 도심에서 즐기는 크리스마스 거리, 바다길이 열리는 안산 누에섬과 황홀한 석양, 동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해돋이 명소, 치유 온천수 석정온천휴스파 등은 가족과 함께할 최적의 겨울휴가지로 꼽혔다.

여행지와 함께 맛집도 수록됐다.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와 특산물도 함께 들어있다. 책자는 전국 우체국에 비치돼 있어 가까운



집배원이 전해 드리는 겨울여행 책자.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을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오늘의 운세 12월 3일 (음 10월 25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된다고 되풀이하면 정말 된다. 60년생 어린 친구를 만나야 지혜가 생기고 일도 잘 풀린다. 72년생 1%만 존중해줘도 99%의 마음을 얻게 된다. 84년생 우는 아이는 젖을 뗐더라도 달래야 한다.
- 소**  49년생 자신감은 내면에서 나온다. 61년생 파란 하늘이 그림고 비빌 언덕이 필요한 날이다. 73년생 자신이 옳다고 믿어도 침묵해야 한다. 85년생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는 것이 뜻밖의 좋은 일이다.
- 호랑이**  50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최선을 다하자. 62년생 상대의 실수를 덮어 주면 보답을 받는다. 74년생 동가식사(東家食西家宿)되지 않도록. 86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게 된다.
- 토끼**  51년생 아랫사람의 조언으로 일이 잘 마무리. 63년생 건강이 염려되면 먹는 것에 주의하고 운동. 75년생 집 내간 말이 새 식구를 일러서 돌아오니 이득이 많은 날. 87년생 비단옷 입고 밭길을 돌아다니는 격.
- 원숭이**  52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껴야 하는 날. 64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 76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은 법. 88년생 상대방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내 손안에 있으니 다행.
- 뱀**  53년생 지는 일을 보면 내 신세를 보는 듯 처량. 65년생 얼룩진 옷을 바라만 본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77년생 두드러진 열릴 문이니 힘껏 두드려라. 89년생 내용보다 포장이 중요할 때도 있다는 걸 명심.

- 말**  54년생 우물가에 왔는데 두레박이 없으니 답답. 66년생 삶의 질은 나의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걸 명심. 78년생 허투르가치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다 낭패. 90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 하라.
- 양**  55년생 자식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니 흡족. 67년생 상대의 실수나 나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온다. 79년생 여름이 갔으니 부채는 제 역할을 다한 것. 91년생 머리는 아프고 몸도 피곤하나 재물은 들어온다.
- 원숭이**  56년생 칠삭같이 어두우니 곧 새벽이 오겠다. 68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80년생 확실한 거절이 상대에게도 도움을 준다. 92년생 매력적인 이성의 유혹이 있는 날이니 중심을 잘 잡자.
- 닭**  57년생 비상금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할 것. 69년생 자존감이 지나치면 주변을 힘들게 하니 마음을 겸손하게. 81년생 모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93년생 상사와의 의견충돌 예상 양보하라.
- 개**  58년생 뜻하지 않은 행운에 마음이 기쁘나 복병을 주의. 70년생 내가 믿어야 상대도 설득시킬 수 있다. 82년생 겨울은 혼자 웃지 않는다. 94년생 명성이 깔렸으니 최선을 다해서 미뤄둔 일을 마무리.
- 돼지**  59년생 가는 사람도 내게는 소중한 사람. 71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으며 오니 기쁘다. 83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좋은 일이 올 것이다. 95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일이 잘 해결.

# SUDOKU

###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3	4				7	8	
2			3	6				9
		9		6		3		
	1	3			6	5		
	2		7		1		9	
	4			9			7	
		6					1	
		8	5	1	3	4		

	7	1	4		9			
5			2		6			4
				7				
	4			8			6	
9	5		2		3		7	
	6			3			2	
				1				
2		3		8				5
	1		5		9		3	

### 스도쿠 정답

2	9	7	8	1	5	8	6	4
8	1	6	7	2	3	9	5	9
5	2	5	8	6	9	2	7	1
7	6	8	1	4	2	9	2	5
2	5	9	2	7	6	4	1	8
1	2	4	5	9	8	6	7	3
6	7	1	9	8	4	2	5	2
5	8	2	6	2	1	7	4	9
9	4	2	2	5	7	1	8	6
2	5	1	8	9	6	2	7	4
1	9	5	2	8	6	2	7	4
7	8	9	6	2	1	4	5	3
4	6	2	7	5	2	1	9	8

문제 제공 = 보누스

# 김상회의四季 복덕의 인연

“복덕이 잘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날씨 좋은 오후에 몇 사람이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던 중 나온 말이다. “복덕이란 게 바란다고 막 들어오나. 그럼 아무나 받게.” 옆에 앉은 사람이 웃음을 지으며 응답을 했다. 복덕은 말 그대로 복스러운 이익을 말한다. 집안에 또는 사회적으로 이로운 일과 행복한 일이 생기는 걸 뜻한다. 그러나 복덕은 아무나 누구에게나 오지 않는다. 선하게 산 사람에게 조상님 부처님이 내리는 보살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유교나 불교에선 선행을 행한 사람에게 복덕이 내린다고 말한다. 알기 쉽게 말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 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외국의 유명한 일화를 보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한국에서 미국대사를 역임했던 제임스 레이니는 귀국해서 예모리 대학의 교수가 됐다. 그는 건강을 위해 출퇴근 할 때 걸어서 다녔다. 어느 날 그는 작은 집 앞에 쓸쓸하게 혼자 앉아있는 노인을 보았다. 레이니는 다정하게 한마디의 인사를 건넸고 말뱃이 됐다. 시간이 날 때면 레이니는 외로운 노인을 찾아가 커피를 함께 마시고 잔디를 깎아주기도 했다. 그렇게 2년여가 지났을 때 레이니는 출근길에 노인을 만나지 못했다. 집을 찾아간 그는 노인이 전날 별세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조문을 하던 그는 노인이 코카콜라 회장을 지낸 사람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정말 놀랄 일은 따로 있었다. 노인이 그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남긴 것이다. 레이니는 그 돈 전액을 예모리 대학에 발전기금으로 내놓았다. 엄청난 금액을 내놓은 그에게는 총장이 라는 명예가 주어졌다. 이 이야기를 보면 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꼭 보상을 받으려고 선하게 사는 게 아니다. 선하게 살면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선사할 수 있고 힘겨운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선하게 살아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거기에 더해 선물 같은 특별한 복덕이 따라온다. 내가 받지 못하면 후손들이라도 복덕을 받는다. 복덕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21-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9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96호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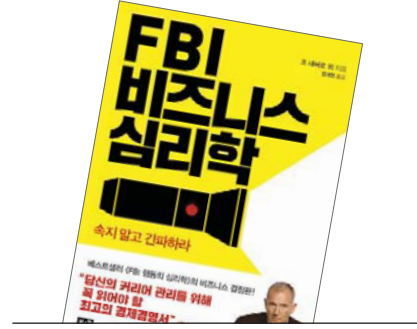
### FBI의 패러다임으로 영업을 간파한다

영업 미팅 도중 상대방이 계속 목 근처를 쓰다듬는가. 그렇다면 그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상대가 눈 주위 근육의 변화 없이 입꼬리만 당겨 미소 짓는가. 그도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다. 나머지 93%는 몸짓, 표정, 말투, 자세, 태도 등의 비언어적 요소가 차지한다. 대화를 나누던 직장 동료가 시종일관 팔짱을 끼고 있는 것, 제품을 소개하는 매장 직원이 내 질문을 따라 말하는 것. 이 모두가 나름의 정보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리가 이를 재빠르게 포착해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일상과 비즈니스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존 내버로는 '편안/불안 패러다임'으로 상대를 간파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분석할 때 '저 사람은 지금 편안한가, 불안한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혼이 나거나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 몸을 뒤로 빼거나 손발을 움츠리며



FBI 비즈니스 심리학 / 조 내버로 지음/정세현 옮김/부키

거리를 두려 한다. 입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입술을 자주 핥거나 눈을 격하게 깜빡거리다. 그는 온몸과 표정으로 불안 반응을 표출한다.

저자는 이 방법을 회의, 상담, 협상, 프레젠테이션, 면접 등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에 활용할 것을 권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나를 믿어 달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믿을 만한 사람임을 상대에게 '보여 준다'. 책은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결정적 한 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한다. 360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hjk1@

### 소녀와 여자들의 삶

앨리스 먼로 지음/정연희 옮김/문학동네



저자는 '여성'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책은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의 모든 측면을 그린 앨리스 먼로의 자전적 소설이다. 소설 속 주인공은 집요한 호기심과 남다른 감수성으로 '망명자 혹은 스파이처럼'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변인들의 삶을 면밀히 관찰한다. 강에서 개구리를 잡으며 놀던 어린 여자아이가 자의식이 생기고, 스스로를 소설가로 인식하기까지의 내밀한 감정을 먼로 특유의 통찰력으로 세밀하게 그려냈다. 472쪽, 1만5800원. /김현정 기자

### 다른 소년

이신조 지음/문학동네



이신조의 네 번째 소설집. 저자는 불운한 현실에 에너지가 소진 돼버린 다양한 인물들과 그들이 지나온 삶의 인과과정을 들여다본다. 주인공인 열여덟 살 소년은 버스에서 우연히 주문 스물한 살 대학생의 신분증을 이용해 낯선 도시를 헤맨다. 저자는 소설의 인물들을 살인, 지진, 방사능 유출 등 감내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하게 만든다. 어떠한 삶도 '다른' 방향으로 또다시 나아가볼 수 있다는 희망을 시적인 문장들로 담아냈다. 312쪽, 1만3500원. /김현정 기자

### 조선 리더십 경영

윤형돈 지음/와이즈베리



4차 산업혁명의 거센 물결이 사회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인간이라는 존재다. 책에서 다루는 인물은 조선 시대라는 시기에 한정됐지만,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인간 군상과 놀랍게도 많이 닮아 있다. 세종 같은 사람, 원균 같은 가짜 리더 등은 오늘날 우리에게 훌륭한 반면교사나 롤모델이 되어준다. 264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 코스모스

코스모스 하늘하늘 춤추는 그 눈시리 창공 저 꽃밭에 누워 나도 꽃이고 싶은 날.

/고흥곤 작

# 겨울 패션의 완성은 '방한부츠'

아웃도어·스포츠 브랜드서 주목  
보온성·디자인 갖춰 '일석이조'  
접지력·방수기능도 더 우수해져

겨울 패션에서 '부츠'는 빼놓을 수 없다. 그 중에서도 보온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방한 부츠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들이 방한 부츠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기능과 소재, 디자인이 다양해지면서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신슬레이트나 거위털 등 충전재와 소재에도 브랜드별, 제품별로 차이가 있다. 또 접지력이나 방수 등 기능도 더욱 우수해졌다.



아이더의 방한 부츠 '메스' 화보컷. /아이더

아이더는 직장인들을 위한 캐주얼 방한 부츠 4종을 선보였다. '로렌2 부츠'는 지난해 베스트셀러였던 로렌 부츠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가볍고 보온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신슬레이트 충전재와 퍼(Fur) 소재를 사용해 방한 기능을 높였고, 쿠셔닝이 우수한 창을 적용해 오래 걸어도 편안하다. 밑창에는 접지력이 우수한 하이드로스토퍼(HYDR O-STOPPER) 소재를 사용해 눈길 및 빙판길에서도 보행 안전성을 높였다.

아이더의 '메스 부츠'와 '제나 부츠' 시리즈는 보온성과 스타일을 모두 잡았다. 우선, 메스 부츠는 캐주얼한 스타일의 남녀공용 로우컷 방한 부츠다. 신발 전체에 재봉 스티칭 느낌의 디테일을 적용했고,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또, 미끄럼을 최소화해주는 엑스그립 컴파운드 소재를 사용해 빙판길이나 눈길에서도 안전한

게 다닐 수 있으며, 측면에 방수 지퍼를 사용해 쉽게 신고 벗을 수 있다.

제나 부츠 시리즈는 세련된 스타일에 방한성을 겸비한 여성용 미드컷 부츠다. 신슬레이트 충전재와 쿠셔닝이 좋은 창을 적용해 방한과 편안함을 두루 잡았다. 종아리 부분에는 퍼 장식이 더해졌다.



K2의 겨울 패딩부츠 4종컷. /K2

K2에서는 이색 방한 부츠를 출시했다. 커피전문점 탐앤탐스와 협업으로 커피 가루를 적용한 방한 부츠 4종을 출시한 것. 재활용 커피 가루가 함유된 인솔을 적용해 항균 및 소취 기능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제품 4종의 명칭은 '라떼(LATTE)', '마끼아토(MACCHIATO)', '더치(DUTCH)', '크레마(CREMA)'다. 미끄럼 방지 기능을 위해 하이드로스토퍼를 바닥창에 적용했다.

K2는 기존 부츠 대비 스토퍼 면적을 확대하고, 눈길 및 젖은 노면에 특화된 타이어 패턴을 적용해 방한 부츠 4종의 안정성과 접지력을 강화했다. 또 방수 및 투습 기능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쿠셔닝이 좋은 미드솔을 적용했다. 측면에는 지퍼를 설계해 신고 벗기 용이하다.

스타일도 다양하다. 기본 디자인의 라떼는 블랙, 다크 그레이, 다크 브라운 3가지 색상으로 구성됐다. 퍼가 부착된 마끼아토는 블랙, 그레이 2가지 색상이며, 앵글 부츠 길이의 더치는 블랙, 네이비 2가지 색상이다. 크레마는 캐주얼하게 신기 좋은 패딩 슬립온 스타일로, 블랙과 네이비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다.

노스페이스도 올 겨울 흑한에 대비해 '부띠'와 '몰' 신제품을 출시했다. 노스페이스는 최고급 구스다운 충전재를 신발에 적용해 보온성을 높였다. 패딩 재



노스페이스의 '부띠 컬렉션' 제품컷. /노스페이스

킷을 연상시키는 입체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노스페이스의 '여성 부띠 클래식 (W BOOTIE CLASSIC)'은 기본 미드컷 스타일로 아웃도어 및 일상에서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다. 최고급 구스다운 충전재와 하이드로스토퍼 밑창이 적용됐다. 색상은 브라운, 블랙, 스틸 그레이 3가지다.

'여성 부띠 집 하이(W BOOTIE ZIP HIGH)'는 무릎 아래까지 감싸주는 긴 기장으로 보온성을 극대화했다. 또 안쪽에 지퍼가 달려있어 신고 벗기 좋다. 편의성을 높인 '여성 부띠 클래식 쇼츠(W BOOTIE CLASSIC SHORT)'는 네이비, 블랙 2가지 색상으로 출시했다.

프로스펙스는 여성용 '히트워킹 하이'를 출시했다. 아웃도어 및 일상에서 착용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신발로, 로우, 미드, 하이 등 3가지 디자인으로 출시돼 취향에 따른 구매가 가능하다.

이번 신제품은 보온성이 뛰어난 양모 원단을 사용해 추운 날씨에도 발과 발목을 따뜻하게 보호해준다. 발가락과 발등을 둥글게 감싸는 디자인을 적용해 귀엽고 활동적인 느낌을 더했다. 또 찬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목 부분에 조르개를 더했고, 발수 처리 가공으로 생활 방수 기능을 갖췄다.

관대용 아이더 신발용품기획팀장은 "올 겨울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방한 부츠 역시 통패딩처럼 보온력은 물론 데일리룩, 오피스룩과 매칭할 수 있는 스타일리한 아이템이 인기"라며 "아이더는 자신만의 패션 스타일과 자연스럽게 매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타일의 방한 부츠를 선보인만큼 올 겨울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 크리스마스 케이크 하나면 '홈파티' 준비 끝!

신세계푸드, 케이크 20여종 출시  
컬러 생크림·장식으로 가성비 ↑

신세계푸드가 홈파티족을 위해 가성비를 높이고 화려함도 더한 크리스마스 케이크 20여종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신세계푸드는 최근 경기 불황과 외식 물가 인상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홈파티족이 파티 분위기를 연출을 위해 화려한 디자인의 실속형 케이크를 선호하는 것에 주목했다. 이에 신세계푸드는 케이크 최대 성수기인 연말을 맞아 컬러 생크림, 캐릭터, 트렌디한 장식 등으로 화려함을 더하고 가성비는 높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선보였다.

신세계백화점 내에서 운영하는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 '더 메나주리(The



더 메나주리 케이크 /신세계푸드

e Menagerie)'의 신제품으로는 다채로운 컬러의 생크림을 활용해 빼에로의 얼 굴 모양으로 만든 케이크 '크리스마스 빼 에로맨', 부드러운 티라미수에 미니 브라우니와 서커스 장식을 더한 '서커스 티라미수', 산타클로스나 크리스마스 트리 등을 컬러 생크림과 장식으로 귀엽게 꾸민 컵 케이크 등 10여종을 내놨다.

이마트 내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

랜드 '데이앤데이(Day And Day)', '밀크앤하니(Milk And Honey)'의 신제품으로는 1~2만원대 가격으로 실속을 더한 크리스마스 케이크 5종을 출시했다. 대표 제품은 이마트 일렉트로마트의 캐릭터 일렉트로맨을 활용해 재미 요소를 더하고 미니 톨케이크를 올려 볼륨감을 높인 2단 생크림 케이크 '일렉트로맨과 파티', 눈사람 모양의 미니 사이즈 생크림 케이크에 딸기 토핑을 올린 '아기 스노우맨' 등이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홈파티 문화가 확산되면서 크리스마스 연말 모임을 집에서 치르는 고객들을 위해 화려함과 가성비를 높인 케이크를 선보이게 됐다"며 "파티 분위기를 한층 높여 줄 더 메나주리, 데이앤데이, 밀크앤하니 케이크로 즐거운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2012년 출간! 세계 54개국! 누적판매 20,000,000부!  
세계적 베스트셀러와 가족공연 최고의 제작진이 만났다!

MUSICAL

# 산타와 빈양말



**<러브 액츄얼리>의 감독 리차드 커티스가**  
전 세계 가족들에게 선사하는 또 하나의 가슴 따뜻한 선물

2018. 11. 06 TUE ~ 12. 30 SUN KT&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

공동제작 (주)컬처홀릭 (주)컬처마인 |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 문의 컬처마인 1566-5588



예산심사 지연에 시간 벌었지만...

# '광주형 일자리' 협상 난항

예산 예정일까지 협상 타결 총력  
"연말까지 노동계 설득 이어질 듯"

현대자동차와 합작법인을 통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답보 상태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협상 시간을 벌었지만 입장 차이가 상당해 장기화도 전망된다.

광주시 투자협상단은 3~7일 서울 현대차 본사에서 다시 집중 협상을 할 계획이다.

당초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까지 협상을 끝내려 했지만 여야 공방으로 예산 일정이 지연되면서 협상 시한을 더 늘렸다.

협상단은 예산안 통과 예정일인 7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러나 적정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예산 일정에 맞춰 협상을 타결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예산 일정을 넘기더라도 협상은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일행이 허부영 현대차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차의 투자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인 만큼 예산 일정을 넘겨 내년도 국비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협상은 끝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이번 달 말까지 협상을 타결해 현대차의 투자를 끌어내면 내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복안이다.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다른 지역에서 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여서 더 이상 협상을 끌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대차와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고 현대차 노조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라서 올해까지 협상을 끝낼 수 있을지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

협상단은 노조와도 지속적으로 만나 입장 차이를 좁히고 사업에 동참해달라고 설득할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달 30일 현대차 울산공장을 직접 찾아 노조를 만나 동참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미 자동차 생산공장이 포화한 상태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과잉투자"라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국회 예산 처리 법정 시한에 맞춰 협상을 끝내려고 노력하지만 예측하기 어렵다"며 "예산 일정을 넘기더라도 12월에는 끝내겠다"고 밝혔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 전남동물위생시험소 AI 차단방역 소독 강화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겨울철새가 본격적으로 날아오고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는 점을 감안해 철새 도래지와 닭·오리 사육 농가 차단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2일 전남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 이후부터 야생조류 분변 검사 결과 11월 30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저병원성 AI 항원 18건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전남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해 광역방제기 2대와 소형 방제차량 4대를 활용해 전남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 주변도로 및 인근 농가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12월 말까지 철새도래지의 텃새, 철새 등 야생조류 분변 예찰검사를 실시해 촘촘한 방역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AI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겨울철새가

찾아오는 도래지 방문을 자제해야 하나 부득이 철새도래지를 방문할 경우 야생조류 분변이나 사체와 접촉을 피하고, 방문 후에는 발판소독소에서 신발을 소독 시설에서 차량을 각각 소독해야 한다.

농가에서는 기온 하강에 따른 소독시설의 결빙·동파 방지를 위해 보온설비를 미리 정비하고 소독약품의 유효기간 및 적정 희석배율을 확인해야 한다.

정지영 전남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전남에도 겨울철새가 몰려오고 있는 만큼 닭·오리 사육농가에서는 축사 소독과 그물망 설치 등 차단방역에 힘쓰고, 가족이 집단 폐사하거나 질병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축질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남=봉채영 기자



## KT&G 상상유니브 전남 운영사무국-광주 북구청, '사랑나눔 김장대전'

KT&G 상상유니브 전남 운영사무국은 지난 1일 광주 북구 기아챔피언스필드 주차장에서 '2018 사랑나눔 김장대전'을 개최했다. KT&G 전남본부 임직원과 대학생 봉사단 '상상발룬티어'를 비롯한 북구 자원봉사자 150여명이 참여해 축제 같은 분위기로 진행됐다. 자원봉사자들이 담근 6톤의 김치는 광주광역시 5개구(북구, 서구, 남구, 동구, 광산구) 외 전남 지역 14곳에 전달됐다. /광주=봉채영 기자

## 담양군 '지명천년' 역사·문화 담은 문장 완성

### 지명천년 기념 디자인 프로젝트

생태와 인문학이 어우러진 도시 담양에서 지명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문장이 만들어졌다.

담양군은 담양 지명천년을 맞이한 올해를 기념하기 위해 천년담양 문장과 12개 읍면·문장을 개발하는 디자인 프로젝트가 완성됐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지역이 가진 생태적 환경과 선비들의 누정문화를 포함한 인문학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담양군의 정책을 토대로 '천년담양-생태와 인문학으로 디자인하다'라는 슬로건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문장개발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담양의 각 읍면의 문화와 특징을 담은 대표 문장을 만들어 천년의 역사를 기념코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각 읍면만의 문장을 개발해 의미를 더했다.

군은 실제 디자인에 앞서 각 읍면의 특징과 정체성을 담아내기 위해 읍면 역사 문화 자연 등 특성조사와 함께 5회의 군



/담양 군청

민 보고회를 통해 읍면의 대표를 만나 주민과 밀접하게 의견을 나눴다. 천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문장을 완성했다.

천년담양을 나타내는 대표 문장에는 인문학의 고장임을 표현하는 책과 정자를 그려 넣고 대나무와 산천초목으로 빼어난 담양군의 자연을 녹여냈다.

읍면 문장은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특징이 담겼다. 담양읍을 대표하는 자원인 죽녹원과 관방제림 고려의 문화재인 석당간부터 최근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담빛예술창고까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

는 지역의 요소들을 골고루 담았다.

이번에 완성된 문장은 읍면별 문장을 동판으로 제작해 설치하고 읍면깃발을 제작해 축제 입장식 등에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 읍면의 정체성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한 읍면문장 인문예술 색 입히기 공모전을 통해 관내 주민과 학생뿐 아니라 전국에 문장의 의미를 홍보할 계획이다.

디자인을 맡은 김현선 디자이너는 "지역 자치 단체 문장은 형식적인 이미지로 어떤 지역을 나타내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담양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지역을 구성하는 실제 요소들을 이미지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담양 지명 천년을 맞아 탄생한 문장은 담양의 역사를 반추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함축한 문화적 자산"이라며 "무엇보다도 디자이너만이 아닌 군민과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는 점에서 과정 또한 빛나는 공공디자인의 수준을 높여준 프로젝트가 됐다"고 밝혔다. /전남 담양=김태수 기자 ts7080@

## 장성군 소농가에 공공비축미 출하운송료 지원

2018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이 마무리된 가운데, 장성군이 저소득 농가를 위해 건조벼 출하운송료를 지원해 호평을 받고 있다.

농업인들이 공공비축미를 출하하기 위해서는 매입이 진행되는 창고까지 벼를 옮겨야 하는데, 차량이 없는 농가는 차량을 임차하거나 돈을 주고 운송을 맡겨야 해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장성군은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인들에게 공공비축미 출하운송료를 지원키로 하고,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나 이장협의회 등에 운송료와 상·하차를 지원해 출하를 대환토록 했다.

그동안 출하운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는 소농농지 5000㎡이하 농가 중 여성농업인이나 거주 3년 이상의 고령농가로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농농지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키로 확대했다. 이



장성군이 저소득농가를 대상으로 공공비축미 출하운송료를 지원해 호평을 얻고 있다.

에 따라 올해 251명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달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공공비축미매입을 마무리했다. 올해 장성군 매입량은 산물벼 1,377톤, 건조벼 3,876톤으로 총 5,253톤이며 금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친환경벼 366.4톤도 포함돼 있다. /전남 장성=봉채영 기자

## 장흥군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장흥군은 관내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겨울철 농한기에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및 밀렵·밀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합동단속을 벌인다. 현재 운영 중인 야생동물보호원이 밀렵·밀거래 감시와 단속활동도 전면에 선다. /전남 장흥=위지훈 기자 jh2255@

## 함평군 '함평 생(生)비빔밥 어울림마당' 개최

전남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오는 7일 함평 5일 시장에서 함평 생(生)비빔밥 어울림 마당 축제를 개최한다. 또한 향토 산업 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함평 생(生)비빔밥 식재료센터 개장식도 이날 함께 열린다.

함평 대표 먹거리인 생고기 비빔밥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비빔밥 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함평군 개군 이래 처음 개최된다.

축제는 7일 오전 10시 모듬북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인기가수 초대공연, 대형 생(生)비빔밥 퍼포먼스 및 나눔행사, 품바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축제 막바지에는 경품추첨, 기념품 배부 등을 통해 다양한 선물도 지급한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이번 축제는 함평 생(生)비빔밥이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첫선을 보이는 자리"라며 "정성스레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전남 함평=양수년 기자 ysn6313@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29 | 해질 / 17:14

12월 3일 (월) 음력 : 10월 26일

수도권 날씨 9 ~1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5/14, 동두천 7/14, 가평 4/11, 파주 7/14, 서울 9/15, 양평 7/13, 인천 11/14, 수원 11/16, 용인 11/16, 평택 10/16, 백령도 11/1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산업] 현대자동차그룹 G90·팰리세이드 흥행몰이 05



Life

[르포] '年 151만대 생산' 코웨이 충남 유구공장 L2



# 서울시 여성 공무원도 숙직... 형평성 속 기대반 우려반

### 남녀 형평성 도모 취지로 시행 男 66%, 女 53% 숙직제도 찬성 같은 의무에 동등 권리 생겨야 추행·폭행 등 안전 우려도

서울시가 이달부터 여성 공무원 숙직을 시범 운영한다. 공직사회에서는 남녀 형평성을 도모하겠다는 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울본청은 12월부터 주 2회에 걸쳐 총 8회, 요일을 달리해 남녀 혼합방식으로 숙직을 실시한다. 현재 본관에서 남성 4명, 서소문 별관에서 남성 2명으로 실시하고 있는 숙직을 이달부터 본관은 남성 2명·여성 2명, 서소문 남성 1명·여성 1명 또는 여성 2명으로 구성해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여성 공무원 인원이 많지 않아 남성 공무원들만 숙직을 해왔다"며 "그런데 여성 공무원 비율이 40% 넘게 늘어나면서 남성들의 숙직 부담이 가중됐고, 여성들도 숙직을 마다하지 않아 이달부터 여성 공무원도 숙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4월 서울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 인원의



서울시가 12월부터 본청에서 여성 공무원 숙직을 시범 운영한다. 이를 두고 공직 사회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유투이미지

63%가 여성 공무원 숙직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남성은 66%, 여성은 53%가 여성 공무원 숙직 제도에 찬성했다.

본청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이 일을 계기로 여성들이 힘든 일을 기피한다는 편견이 사라져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한다"며 "의무만 부여하고 권리는 갖아가는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실제 서울시에서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23%밖에 되지 않는다. 서

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11만명 중 여성은 3900명으로 35.5%에 달했다. 그러나 서울시 5급 이상 공무원 1698명 중 여성은 397명으로 23.4%에 불과했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남초현상'은 더 심해졌다. 3급 공무원 31명 중 여성은 4명(12.9%), 2급 공무원 19명 중 여성 0명, 1급 공무원 8명 중 여성은 1명(12.5%)으로 조사됐다.

안전 문제를 이유로 여성 공무원 숙직

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9급 공무원 이모(29) 씨는 "여성 공무원들은 외부 순찰을 돌 때 특히 더 위험하다. 여자라고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이유로 여성 공무원 숙직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 여성 공무원도 숙직하는 게 양성평등이냐"고 반문했다.

실제 지난 5월 여성 전용 숙직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파면되는 일이 있었다. 지난 9월 전북에서는 경찰 간부가 숙직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경을 추행한 일도 있었다.

같은 달 천안시에서는 여성 공무원이 민원인 수십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도 있었다. 천안시 신부동 주공2단지 재개발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시청에 찾아가 비인가 조합장 인가를 요구하며 이를 말리던 여성 공무원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을 퍼부었다.

서울시는 근무자의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본청 및 사업소별 당직 여건을 고려해 청사 방호 등 보완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적이 드물거나 야

심해 안전 위협 요인이 상존하는 시간·장소에서 청사 밖 순찰 등 대면 접촉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당직자의 안전·보호장치로 방호직·공공안전관 등과 긴급 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당직 근무 요령으로 언어·행동 유의, 남녀 공무원 휴식공간 무단 출입 금지 등을 당직근무 개시와 함께 교육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가 지난 4월 실시한 '당직 운영 개선을 위한 직원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여직원 증가로 남녀 당직 주기 격차가 커지면서 숙직 부담이 커지고 있음 ▲숙직 업무나 근무여건을 볼 때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음 ▲여직원을 숙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관례답습적 방식으로 현재 여건과 맞지 않음 등을 이유로 여성 공무원 숙직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하는 직원들은 ▲야간 민원 응대 시 남직원에 비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남직원에 비해 육아 등으로 숙직이 곤란한 경우가 많음 ▲여직원 숙직공간 미비 ▲현재 숙직 운영방식으로도 별다른 문제 없음 등을 이유로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 사대문 안 차량 속도 50km 이하로 제한

### 보행자 안전 위해 '안전속도 5030'

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 도로에서 차량 최고 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서울 사대문 안에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국토부·경찰청·서울시 등 민관학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5030협의회' 주도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



서울 도심에 설치된 시속 제한 안내문. /연합뉴스

~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이다.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도 포함된다.

2일 시에 따르면, 사대문 안 면적은 서울 전체의 1.2%이나 전체 교통사고의 4.1%, 사망자의 3.7%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행사망자 비율도 전체

평균인 57%를 크게 웃도는 69% 달했다. 시는 사대문 안은 보행자 우선 교통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일 경우 보행자 중상 가능성이 92.6%로 높았다. 주행속도가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중상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에 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12월 착공,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한다. 경찰 과속단속은 공사 완료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시내 전역의 도로에 원칙적으로 안전속도 5030를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제한속도의 일관성을 높여 운전자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김현정 기자



### 주말엔 여유있는 9호선 연장선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개통 이틀째인 2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9호선 석촌역을 지나가는 개화방면 급행열차가 비교적 여유있게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노후경유차 제한으로 초미세먼지 12t 줄여

### 서울시, 공공물류센터 출입 제한 초미세먼지 배출량 하루 34kg 감소

서울시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경유차에 대해 시 공공물류센터의 출입을 제한한 결과 연간 12t에 달하는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5월 고시한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고시에 따라 서울지역의 가장 큰 공공물류센터인 가락·강서 시장 출입 차량으로 등록돼 있고, 수도권 지역을 60일 이상 운행하는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가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전국 노후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의 후속 조치다. 공공·민간물류센터의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으로 총 1895대에 대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하루 34kg 감소, 연간 12t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에도 서울 시내 곳곳에 폐쇄회로(CC)TV가 추가 설치되고 경기, 인천에도 CCTV가 설치되는 등 단속이 강화돼 전국 노후경유차의 저공해조치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1군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다"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폐차 지원 및 저공해 조치 지원 정책 등을 적극 활용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 인천시, 대중교통·친환경 교통수단 늘린다

### 2036년까지 철도망 2.6배 확충 등 도시교통 종합계획안 마련

인천시가 2036년까지 지역 철도망 길이를 현재의 2.6배 수준인 359.16km로 확충하고, 대중교통과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비율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교통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종합계획안을 기본지침으로 삼아 향후 20년간 교통계획·정책을 수립하고, 교통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교통여건·패러다임 변화와 국가·지자체 교통 관련 계획을 반영해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관계 기관·전문가·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계획안에는 인천 지역 철도망을 2017년 기준 139.28km에서 2036년 359.16km로 2.6배 확충하고, 노선 간 직결운행과 급행 서비스를 지속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속광역도로망 12개 노선 235km를 신설하고, 기존 5개 노선의 길이는 32.7km 늘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버스 인프라 등을 확충해 대중교통 분담률도 8.4%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인천 서북부터미널(검암) 신설, 남부권터미널(관교) 민간복합개발, 복합환승센터 신설, 버스전용차로 확대 등이 예정돼 있다.

계획안에는 전기·수소차를 2036년까지 12만대 확대 보급하고, 대중교통카셰어링 등 공유 교통수단에 친환경차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인천시는 도시교통 종합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중앙부처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종합계획에 포함된 5개의 법정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Lifetime Value Creator

고객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최고의 가치를 선사하겠다는 롯데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www.lotte.co.kr

# 상생의 미래로 롯데가 함께 갑니다

## 청년의 열정과함께

청년창업 육성프로젝트 청년식당  
2016년 시작, 현재 4호점 오픈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프로젝트  
5년간 약 50억 원 기금 지원

## 창업의 꿈과함께

스타트업 발굴, 육성 및 투자  
일캠프 프로그램을 통한 약 70여 개 업체 지원  
글로벌 창업&스타트업 대전  
연 1회, 약 400여 개 업체 참여

## 중소기업의 미래와함께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총 7회, 국내외 약 1,000여 개 업체 참여  
동반성장펀드  
한해 약 7,520억 조성



모든 순간을 같이 나누고, 같이 성장하는 당신의 인생과 함께 가는 좋은 친구



함께 가는 친구, 롯데